

市, 역대 재산 사라져도 까맣게 몰랐다

수십억원 들인 도매물류센터

운영말긴 조합 관리감독 소홀

시장기류 공매처분 눈치못채

뒤늦게 '반환·손배' 진행중

인천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세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시민 세금이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2010년 인천시 중구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완공해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이하 생활잡화조합)에 운영을 맡겼다. 생활잡화조합은 센터 운영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금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이 생겼다. 결국 2011년 4명의 조합원

이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과 물품 구입비 등으로 투자한 1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활잡화조합이 돈을 주지 않자 1억9천만원 상당의 센터 내 집기류에 압류를 걸고, 공매 처분에 나뉘 가졌다. 문제는 공매 처분한 집기류의 대부분인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시 자산이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인천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013년 6월께 민원인과 상담과정에서야 비로소 시 재산이 공매 처분된 것을 알아챘고, 같은해 11월에 이르러서야 공매금을 나눠 가진 4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생활잡화조합 이사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잡화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3년 가까운 시간 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 관리, 감독 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법무담당관실과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결과 관리협약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 책임만 있을 뿐 납품, 배송 등 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의 관리·감독권, 책임은 없다는 해석을 얻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은 누구도 시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55억9천800만원이며 이 중 35억4천500만원이 시비다. 시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시설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광역버스 입석금지 "자리 없어요"

인천과 서울간 고속화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첫날인 16일 오전 부평역 인근 정류장에서 광역버스 기사가 좌석이 없다며 버스에 오르려는 승객들을 제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22면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오늘부터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4 박태한 200m 올시즌 세계 1위 14

교육인천 '황우여의 꿈' 이뤄지나

뉴스분석

'교육부 장관' 내정 의미

13년 동안 국회 교육위 활동

송도글로벌밸 조성 '탄력'

국제화특구 지원 강화 기대

신임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국회의원이 내정되면서, 인천 교육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이 '선진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우여 내정자는 총 18년의 국회의원 생활 중 13년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우선 인천대가 반기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국비 확보에 승전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해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법인 전환 후 5년간 인천시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빌미로 대학운영

비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병길 인천대 부총장은 "황우여 내정자는 국립대법인 전환 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 "기획재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로 인천대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글로벌밸퍼스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설립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컨서바토리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주립대(UNLV)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며 "이들 대학을 송도에 설립하기 위한 교육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

다. 교육부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돼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을 받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황우여 내정자가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연 인천시 교육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대화과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황우여 내정자는 지난 15일 내정 직후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에서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했을 때 교육인천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선진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고향생각 평생 지우지못한 김차영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

경인일보 연중기획

| 시리즈 15면

시인이면 누구나 '시란 무엇인가', '시는 왜 쓰느냐' 하는 질문에 늘 물리게 마련이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시인 김차영(金次榮)은 시집 '부름 뜬 태풍의 눈'(1974)에서 "시란 삶의 의미와 똑같이 절대로 비구상적(非求償的)인 것이다. 그것은 구도자(求道者)가 고행을 통하여 얻어내는 아픔 속의 희열과 같은 느낌인 것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묻고 답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추상어로(抽象語路)'는 제목 그대로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바람대로 프

랑스나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 더 유명했을까. 김차영의 작품세계를 깊게 알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대 시인 박인환은 김차영에 대해 "시에 있어서 모든 문화적인 체계를 조리있게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철학과 애기하고 사회학도 애기하고 사랑도 하고 눈물도 흘린다. 조금도 이성의 동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흥분된 기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천상병처럼 유명해지고 싶지만, 천상병처럼 쉬운 시는 죽어도 못 쓴 다던 그는 사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강화와 인천에 대해서만은 친절한 시인이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면에 있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옛 고려의 흔적을 '江都(강도)의 하늘'이란 시에 담기도 했다.

인천을 떠나 멀리 있어도 늘 인천 문화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 알림 |

강남 길목서 만난 '실시간 경인일보'

신사동 전광판 추가...美뉴욕 등 7곳 운영



전국 지방신문 최초로 서울지하철 2호선과 강남 논현역 앞 등 서울 심장부에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선보이며 동영상 및 실시간 자막 뉴스를 제공해 온 경인일보가 교통 요지인 강남구 신사동에 대형 전광판을 추가로 확보해 다양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 사진

이미 지난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뉴스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방신문의 신기원을 이룬 경인일보가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발빠르게 대처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경부고속도로선상 한남대교 한남IC 진입방향으로 가다 만나볼 수 있는 신규 전광판은 경부고속도로 출발점이자 강남 진입로에 위치해, 매일 이곳을 지나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경인일보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인일보는 이미 수원역과 서울역·논현역·충무로역·신설동역 등 수도권 최대 밀집지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뉴스 속보, 공익 및 기업광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정보 소외 현상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사역 전광판으로 경인일보의 전광판 매체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창간 69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경인

2014 협성대학교 글로벌 CEO 아카데미 과정 제4기 모집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저명한 외부 강사진"



박복선
경성대학교
KOTRA 중국전문가



김성현
ANDA
제테크 컨설턴트



김인규
한국전통기업재단이사장
전) KBS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범선
소설가



서정원
화성갑 국회의원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협성대 석좌교수



유경희
미술평론가
유경희예술처방연구소장



유응렬
SBS공평해설위원



윤동한
한국콜마회장



이희수
한양대박물관장



조영신
두원공대교수
국제매너



조영진
얼굴경영연구소장



허병도
전) 중소기업청 차장
에이치비이온대표이사



황우석
에이치비이온대표이사
전) 서울대교수



홍수현
스포츠 해설가
전) 복싱 세계챔피언

교육특징

- 우수한 강사진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저명한 외부 강사진
- 서울·경인 지역을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
- 경인일보, 수원방송의 언론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여성경제인 연합회, 한민족세계연합회의 세계 17개국 한인체육회장과 교류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식 도입
- 사례연구발표, 해외산업시찰, 글로벌매너, 인문학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방식 도입
- 석식제공
- 퇴근 후 수업 전 석식과 다과로 서로의 정보공유 및 친교의 시간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등록기간 : 2014. 7. 21 (월) ~ 8. 29 (금)
- 개 강 일 : 2014. 9. 17 (수) 19:00 (*주1일 총15주간 교육)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8:30 ~ 21:00
- 교육장소 : 협성대학교 이공관 3층 국제회의실
- 연 락 처 : 대외협력과 031-299-1361, 010-3025-5087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uhs.ac.kr>) 참조

극적 맞손 도의회 ‘지각 임시회’

與野 갈등 빚던 윤리특별위원장직 1년씩 말기로 합의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임시회 21일까지 연장 불가피

파행으로 치달던 경기도의회(경인일보 7월 16일자 2면 보도)가 여야간 갈등을 빚던 윤리특별위원장직 소관문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17일 까지로 예정됐던 제289회 임시회는 21일까지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16일 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윤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8대 후반기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윤리위는 9대 의회 개원 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8대 전반기까지

윤리위가 다수당 몫이었다”며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강득구 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만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법치선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1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낳고, 새누리당은 “물리적 대응도 불가피하겠다”고 맞받아치며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마라톤협상이 이어진 끝에 양당은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회의 파행이 양쪽 모두에 손실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지난 15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대로 윤리특별위원장을 1년씩 담당하기로 했다. 대신 윤리특별위원항상회의를 열 수 있는 ‘상설’ 특위가 아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꾸리는 ‘비상설’ 특위의 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비상설 특위가 도나 도교육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새정치연합이 도를, 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을 겨냥해 특위를 무더기로 구성하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17일까지였던 임시회 일정은 21일까지로 연기될 전망이다. 자리다툼에 문을 열자마자 늦장회의를 하게 된 셈이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무산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배분,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17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21일 예산결산특위·윤리위 구성과 조례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극적으로 합의가 돼 다행이지만 시작부터 싸움만했다는 여론의 못매를 피하긴 어렵게 됐다”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남은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기경기자 kanggi@kyeongin.com

신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흥기헌씨



신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흥기헌(75·사진) 전 경기문화재단 사 무 총 장 이 임명됐다.

흥 이사장은 수원고교와 경희대 법률과를 졸업한 후 MBC보도국 기자를 거쳐 경기일보 이사과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년동안 경기문화재단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 아이패드 앱 홈페이지 kyeongin.com

인천시, 안전 인프라·매뉴얼 만든다

인천시가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안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부평역 주변과 지하상가 등 9개 역세권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했거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상인과 이용자 등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 인구

가 많다”며 “화재 등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신속한 대응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현장 위주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 48개 가운데 인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은 24개. 시는 지난달 ‘위기관리 현장 조치 공동행동매뉴얼’을 작성·배포한 데 이어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광역버스 통행시간 30%↑ 단축편 환승”

경기도민 47% 의사 밝혀

비효율적 노선·차내 혼잡 열악한 정류장 등 불만 커

경기도민들 10명중 5명은 광역버스 통행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면 환승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대도시권 교통문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활용하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약 17조4천억원의 막대한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허브(환승거점)를 통해 기종점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시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개 노선이 하나의 경로를 중복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굴곡으로 최단거리 대비 1.6배의 거리를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버스운영 체계는 ‘서버스 약화 → 적자노선 양산 → 이용감소’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38.3%로, 서울시 60.4%보다 낮으며, 이용자들은 차내 혼잡, 노선 굴곡, 열악한 정류장 대기 공간 등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의 효율성 개선과 빠른 이동을 위해서는 환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연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환승을 포함한 통행시간이 약 30% 단축되면 절반 가까운 이용자(47%)가 환승하는 경로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승정류장의 열악한 환경만 개선해도 환승 이용객은 67%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앉아서 갈 수 있는 거점 정류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선6기 핵심 버스 정책인 멀티환승터미널과 굿모닝 버스 실현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환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16일 오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의 간담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태행기자 hath@kyeongin.com

도 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확정될 듯

남지사, 공무원 노조와 합의 입법예고 후 9월 임시회 제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북부 발전 공약 실현을 위해 경기도 남부청사에 있던 경제투자실 일부를 북부청사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남 지사와 노조 관계자, 근무지 이전 등의 이해가 얽힌 직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은 시작부터 도 공무원노조의 반대 성명 발표 등으로 난

관에 봉착했다.(경인일보 7월16일자 2면 보도) 1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에는 남 지사와 고상범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경제투자실·평생교육국 등 5~6급 공무원 20명이 참석했다. 경제투자실 직원들은 경기남부지역에 기업이 대다수 있는데 민원고객의 70~80%를 차지해 북부청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평생교육국 직원들은 지난 2009년 평생교육국이 북부청에

처음 생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분청으로 내려오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산부 등 육아 및 출퇴근 문제 등의 해결 방안과 북부청 근무자에게 별도의 인사 가점 등 혜택 부여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육아, 출퇴근 등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부서와 희망자를 신청받아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6~25일 열리는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국내 유치 나서

경기도가 서울시, 종교계와 공동으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국내 유치에 나선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젊은이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1984년과 1985년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전 세계 청년을 초대 한 일이 효시가 돼 1986년 제1회 대회가 로마에서 열린 국제적 행사다. 도는 우선 2019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천주교 서울대교구·의정부교구, 서울·경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와 함께 세계청년대회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무대와 각국 가톨릭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후보였던 지난 5월 세계청년대회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4월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세계청년

대회 국내 유치와 경기도-서울 공동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세계대회가 유치될 경우 개막 미사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폐막미사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서울과 경기북부에 분산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교육부 대학특성화 사업

6개 사업단 선정!

수도권 공동1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모집

가천대학교의 통합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와 파워로
글로벌 명문의 더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기업맞춤형
Edu-EcoSystem기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단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C³ube 시스템에 의한
바이오통합 인재양성 사업단

바이오노학과 / 노노학과 /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나노물리학과 / 약학과

바람개비
보건과학 사업단

의용생체공학과 /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 운동재활복지학과

통합적 휴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 사회복지학과

린-스타트업
(Lean-Startup)기반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

디자인전공

수학기반 맞춤형
금융미드필드 양성 사업단

금융수학학과
금융통계학과

가천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안내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학생부우수자	531명	가천의예	15명	어학우수자	47명
학생부적성우수자	1,285명	가천프런티어	489명	실기우수자	120명
농어촌(적성)	59명	사회기여자	98명	특성화고졸재직자	50명
농어촌(종합)	59명	교육기회균형	40명	수시 총 모집인원	2,899명
특성화고교	59명	취업자	47명		

원서접수 : 9.13(토)~9.18(목)
입시문의 : 가천대학교 입학처
[1577-0067]

아름다운 인재의 생
가천대학교

天地風水地理研究院
등록번호:111-50-64162

전국 모지관리공사

화장, 사초(복판), 이장, 자연장, 화장,
수목장, 조경, 석물, 기묘, 묘지감정, 수해

풍수적 풍조안리 파 도남파

주막지, 발장, 편지, 거둔, 모뎀, 콘도, 사옥, 병원,
요양원, 학원, 학교, 사당, 미터지, 추상장 등

문의 : 011-757-7890
02-778-0707

경인만평

이공명 g498mm@kyeongin.com

좌석(?)행정

광역버스
입석금지
특상

국도교통

백령·강화·덕적도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

인천시, 오늘 타당성조사 중간발표

사곶해변 등 지질 명소 33곳 학술적가치 입증 미흡
2016년 신청 목표 추진위구상... 관광 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백령도와 주변 섬, 강화도, 덕적도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는 17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포지엄’을 열

고 인천 서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층·지형 등 지질구조가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경

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면서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백령권역’으로, 강화도와 덕적도를 비롯한 주변 섬들을 ‘강화·덕적권역’으로 각각 나눠 등재를 추진하거나,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령권역은 지질학적 가치가 큰 명소가 많다. 25억년 전인 선캄브리아기때 형성된 시스템 지형(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굴뚝 형태의 지형)인 두무진,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천연비행장 사곶해변 등 시가 내세운 지질명소는 15곳에 달한다. 8개 섬들을 모은 강화·덕적권역도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인 강화갯벌, 장봉도 폴등(간조시 드러나는 모래퇴적지형)을 포함해 18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백령권역과 강화·덕적권역의 지질구조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입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는 올 10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가지질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 등재 신청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질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단

계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인천 서해안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국내·외 탐방객 증가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태종대 등), 강원도 DMZ, 경북 청송(주왕산 일대) 등 모두 5개 지역이 등재됐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16개 지역을 추가로 인증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수돗물 안정적공급”
AG경기장 등 16곳
급수구역 새로 지정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도시와 새로 지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을 포함한 16개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급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급수구역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심정열수물경기장,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일대 등 16개 지역으로 총 33.52㎢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6만1천여명이 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도시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경기장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고갈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강화도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특히 아시안게임때 경기장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정복 시장 교육공약 이행” 인천시, 교육청과 머리맞대

실무협의체 구성 의견조율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교육분야 공약이행 문제를 협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시장의 교육분야 공약 대부분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초등학교 교육비 부담 제로화를 비롯,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예체능 특기적성 거점학교 설립 등 10여 가지의 교육분야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다. 시는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9월 중 시교육청과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유시장의 공약 가운데 이경연 인천시교육감의 공약과 상충하는 부분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시장의 교육분야 공약 중 특목고 원도심 유치, 국제학교(자사고) 설립 등이 이 교육감의 공약과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임기 동안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의 추가 설립은 없다”며 특목고와 자사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재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등 사업을 재검토하고,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와 방식, 사업비 부담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119종합방재센터 찾은 유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전 인천소방안전본부 119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전담 TF’ 신설

시, 연말까지 용역내용 확정
중장기적 정책 비전 제시
하반기 진흥조례 제정도 추진

인천시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에는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팀은 올 연말까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가칭)‘인천시 문화발전진흥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인천의 문화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지역문화실태 조사결과, 생활문화 육성 방안, 문화전문인력 양성 방안, 인천 고요문화 육성 방안, 신규 문화 사업 발굴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는 구도심 재생과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 소재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천은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주인 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인천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도 공약한 상태. 인천시는 군·구 작은도서관에 운영비(3억6천만원)와 순회사서(32명)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7억1천700만원을 들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광고문의 인천 032)861-3204 수원 031)231-5252

인천 N 방송

※ 네이버, 다음(daum) 검색 창에 인천N방송을 검색하세요!

우리동네 행복을 생중계하세요

일상에 행복을 플러스하는 인천 N 방송

당신이 지금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 시간불문, 장소불문하고 스마트폰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생생방송!
인천 N방송으로 만나보세요. 당신이 현장출동 방송인입니다.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만든 영상 바로 방송 가능

개인(단체) 방송채널 운영 무료

라이브 촬영 및 실시간 공유 가능

나만의 동영상 무제한 저장 공간 제공 (방송과 저장용 한변에)

시민기자단으로 활동 (6월 중 신규모집)

▶ 인천N방송 참여 방법

■ 웹사이트 : www.incheonNtv.com ■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천N방송]앱 검색 ※ 서비스문의 : (032)250-2146~7

특종은 인천 N방송을 타고 행복은 인천 N방송과 나요

No.1

김무성 “모든 결정 미루고 재보선 올인” 안철수 “수원서 먹고자며 주민 만날 것”

미니총선 오늘부터 공식선거전

새누리, 지역잡일꾼론 앞세워

과반의석 사수 현장행보 주력

새정치, 초반 판세 불리 판단

경기지역 5곳 의원 집중 배치

여야는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16일 당을 ‘재보선 총력 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끝나면 다음 총선까지 특별한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걸려있다고 판단,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특히 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등의 ‘경기 대첩’이 이번 재보선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분석속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과반의석 사수’를 내걸고

선거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7·30 재보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원내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재보선까지의 모든 결정을 미루고 거기에 매달리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재보선 전략인 지역잡일꾼론을 앞세워 국가적인 과제인 국가혁신을 이끌어가자. 결론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몰아준 민심을 회복해 국정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것이 수도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특히 재보선 최대 접전지인 수원벨트 등이 포함된 경기지역 5개 선거구를 승부처로 보고 본격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김포 재보선에 출마한 홍철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를 겨냥해 “홍 후보는 김포 주민이 선택한 후보로 이것이 바로 상향식 공천”이라며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는 지역 주민이 전혀 모른다. 이것이 하향식 공천”이라고 밝히는 등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이는 수원 3곳, 평택·김포 각각 1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도에서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통해 당력을 집중시켜 필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재보선 분위기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속에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지역을 할당하는 ‘하방’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의원 개개인이 선거 현장에 뛰어들어 유권자들과 호흡하며 분위기 반전을 통해 재보선 승리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반 판세가 녹록지 않은 경기지역에 의원들을 집중배치하며 ‘경기대첩’에 비상을 걸고 나섰다. 백혜련 후보의 수원에는 당당에 유승하·간사에 남윤인순 의원, 손학규 후보의 수원병에는 당당에 양승조·

간사에 홍의락 의원, 박광온 후보의 수원정에는 당당에 신경민·간사에 유은혜 의원 등을 포함 각각 12명의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정장선 후보의 평택을은 당당에 김성곤·간사에 진선미 의원, 김두관 후보의 김포에는 당당에 원혜영·간사에 윤후덕 의원을 포함 각각 9명을 배치했다.

공동대표들도 현장에 뛰어든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우선 동작과 수원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때문 최고위원회 등 당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다. 물론 평택, 김포도 수시로 가고 충청권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의원들과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백혜련·박광온·손학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 수원 삼각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정성근 장관 후보자 사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자 사퇴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송곳검증 정교수 승진논문 4편 표절 밝혀

‘김명수 낙마 결정다’ 유은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데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고양일산동·사진)

의원의 송곳같은 도덕성·자질 검증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당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여러 낙마 이유 중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논문 표절을 밝혀냈다.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심사 때 제출한 논문 4편 모두가 다른 학자의 저술을 베껴썼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타 학교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위와 양심을 동시에 내던졌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지명을 철회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초선의 유 의원은 ‘교육 일보’으로 19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행사 사회자 섬의 1순위’에 오를만큼 강단있는 언행으로 ‘철의 여인’으로 통

한다. 원내대변인을 맡아 원내·당 회의 참석·브리핑 등의 바쁜 와중에도 이번 인사 청문회를 주도했다. 유 의원은 “논문검증은 무엇보다 시간폭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청문회 기간 2주동안 보좌관들과 의원회관에서 거의 숙식하시피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불매 장관을 맡으실 분은 아니었다”며 “노학자로서 학교에서 제자들과 노후를 보내는 게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충분히 검증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러지 못했다. 인사시스템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됐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교문위는 또다시 2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유 의원은 “현 문교부장관이 그대로 유임됐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면서도 “고(故) 노무현정부 시절 박 대통령 주도하에 당시 한나라당이 도입한 인사청문회인만큼 이번에는 사전 검증절차를 제대로 진행,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박 대통령, 총기사고 재발방지대책 주문

軍주요지휘관 140명 靑오찬

北 도발시 군 대비태세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변화된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살아온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복무환경의 개선을 이뤄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 주요 지휘관 1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최근 동부전선의 GOP 총기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각 군 지휘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군의 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나오고 있다”며 “젊음을 희생하면서 고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상황과 관련,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며 “또한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매우 크다. 우리 안보태세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회의를 통해 전반기 국방태세를 논의함과 동시에 대통령님의 통수직을 구현하기 위해 결의를 함께 했다”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과 관련해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우려와 불신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군의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i@kyeongin.com

경인정가

교육시설 재해예방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16일 교육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 및 예방 차원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등 타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재해 관련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시켰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해예방에 최우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재보선 권역별로 나눠 의원·당협위원장 지원

새누리 도당위원장 주관 연석회의

7·30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16일 선거대책회의의 일환으로 ‘7·30 재보궐 선거 대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합천군 경기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연석회의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재보선 지역인 수원(권선)·병(팔달)·정(영동)과 평택을, 김포 지역 등 5개 선거구를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책임을 지고 선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의원 및 당협위원장 외에 수원병 보궐선거에 나선 김윤남 후보와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유익동 후보 등이 참석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평택 지역을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후보들이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지역 토박이가 아니거나 경기도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대거 출마하게 된 것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며 “이번 재보선은 지역 새파라와 장사꾼과의 싸움이지만, 새로운 정치 신예들이 대거 투입된 만큼 네거티브가 아닌 미래형 선거운동을 펼치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원연금 악성루머 우려 표명

국회 사무처 “사법조치” 대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25때 참전자들은 명예수당으로 월 8만 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등의 주장이 돌아다니다 16일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와 관련,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온라인상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군의회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물러설수 없는 김무성·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지도부 담판 회동’에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체계 흔든다” “진상규명 한계” 세월호특별법 여전히 수사권 논란

여야, 조사위 구성방식도 이견

단원고생 도보행진 국회 도착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었다. ‘세월호특별법TF’ 여야 간사인 홍일표·전해철 의원은 이날 저녁에 만남을 갖고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판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박영선 원내대표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동은 1시간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회동 후 홍 의원은 “타결을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원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면서 큰 소란이 빚어졌다. 유가족들과 경찰간 대치상황이 약 1시간가량 지속됐고 부상자가 생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상철 영등포시장과 유진규 국회 경비대장이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들은 ‘Remember(기억하라) 0416’, ‘보고 싶은 친구들이 사랑해’, ‘애들이 힘내’ 등의 문구가 쓰인 노란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인천시 계양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발달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베드타운이고, 전체 면적의 55%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인천지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이 때문에 베드타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서운산업단지 조성 및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등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베드타운 이미지 탈피 재정자립도 높이고, 新성장동력 발굴 혼신

99

이 공약 반드시 지킨다

서운산업단지
조기완공경인아라뱃길
양안지역 개발계양산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여성인력, 청년 및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인천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건설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인터뷰 / 계양구청장

박형우
구청장입니다

약력

- ▶ 인천 계양구 출생
- ▶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졸업
- ▶ 민선 2·3대 인천시의원
- ▶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 민선 5대 계양구청장

계양구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박형우 구청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는 지난 4년 동안 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구정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서운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면 1조3천8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42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운산업단지는 계양의 동력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행정적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
서운산단 조성 ‘행정력 집중’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누빌것

절차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6년에 기반 시설 등이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인아라뱃길 전체 19km 중 8km가 계양구를 흐르고 있지만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처럼 터미널이나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 기여도는 미미한 실정”이라

며 “경인아라뱃길과 계양역·굴현역을 연결하고,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잇는 녹지네트워킹을 만드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친수구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양구는 2012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다. 박 구청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지만 박물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문화나 교육분야는 환경이 열악하다”며 “계양산성 복원과 함께 박물관을 건립해 학생들이 계양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 경인여대와 연계한 교육 사업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가 생각하는 구청장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다.

박 구청장은 “취임 첫 해, 1년 동안 접수된 민원이 1만9천 건이었지만 지금은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 게으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지런하고, 현장 구축구역을 누비는 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대화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박 구청장은 “구민들께서 계양구 최초 연임 구청장이라는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다”며 “지난 4년이 계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이를 구체화해 교육·문화·복지·지역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영기자 kjiy86@kyeongin.com



세상을 여는 창

t-broad

www.tbroad.com

티브로드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HTML5 기반 새로운 스마트TV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월 1,000원이면 우리집 TV가 스마트 TV로 변신합니다.

스마트TV의 스마트한 기능

- 음성인식 & 모션포인팅 리모콘
- TV속 인터넷 검색
- 다양한 TV앱
- TV속 SNS

1877-7000 NAVER 티브로드 검색





섬마다 현안 제각각

현장중심 행정

주민 더 나은 삶 선물

99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인터뷰 / 옹진군수

조원길
입니다



약력

- ▶ 옹진군 백령면 출생
- ▶ 경기수산고등학교 졸업(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재학 중)
- ▶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근무 등
- ▶ 인천시 공보관·자치행정국장
- ▶ 민선 4·5대 옹진군수

먼저 조 군수에게 3선에 성공한 비결을 물어 봤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이나 정치나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조 군수는 “주민을 부모 형제처럼 감싸고, 제가 생각하는바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성을 다한다면, 기회를 다시 주실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직원들에게 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다. 옹진군은 섬으로만 이뤄져 있어 현장을 모르고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지론 때문이다. 요즘은 멀리면 섬마을 그 어디에 또 어떠한 현안이 불거졌을까 궁금했다. 그에게서 다소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낼 무언가가 필요한데...” 같은 옹진군에 속해 있어도 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민들의 정서도 다르다는 얘기였다. 이를테면 최북단 백령도는 불편한 교통이, 연평도는 중국어선 꽃게 불법 조업 피해가, 덕적도는 주민들의 마땅한 먹거리가 없는 것이 현안으로 꼽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주민들이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했어요. 어느 덕적도 주민이 이런 자리에서 사귄대정도 친구에게 흥얼거리면 실한 놈으로 한 마리 보내주라 하면서 잘 지낸다던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변화가 아닙니까.”(웃음)

조 군수에게 세월호 참사는 더욱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연평도 포격사건

과도한 여객선 화물통제 답답
섬지역 열악한 실정 배려안해
노후어업지도선 국비확보 은힘

등으로 큰 시련을 겪었던 터라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유일한 교통편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니 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갑작스러운 여객선 화물 선적 통제로 생활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군

수는 “해경 등 당국이 선박 안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결국 과도한 통제로만 이어지고 있다”며 “섬 사람들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군수는 끝으로 중앙부처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어업지도선 중에는 낡고 낡아서 물까지 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에 요청하는 국비가 번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소위 엘리트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이 공약 반드시 지킨다

맞춤형 마을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청정지역 상품
브랜드화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여객선 교통망
확충 등 안전한
정주 기반 확충

명품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장학재단 기금
150억원 조성 등
지역인재 육성

※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과빠른 위장약 ! 신일겔 정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당신의 위장!!
힘들어하는 당신의 위장을 위하여, 신일겔 정을 권해 드립니다.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

효과빠른 위장약

신 일 겔 정

“간편하고 경제적인 신포장(240정)이 발매되었습니다.”

1. 빠르고 효과적인 제산 작용
4종의 제산성분이 함유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2.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
과도한 위산 분비에 따른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에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www.sinilpharm.com Tel 2211,6700

광고심의필 : 1039-01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SINIL
Pharmaceutical co.,ltd

전국 소상공인 인천서 첫 만남

시장상인등 25일 교류의장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논의

AG성공개최 역할 모색도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지하상가 상인,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주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자의 입장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던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인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5일 ‘전국소기업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대회’를 인천 로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각 지역 차원에서의 모임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인원은 각 지역 협회의 임원진 등 2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또한 2014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아시아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아시아게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2014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 등을 방문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보니 논의가 깊어있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게임의 성공개최를 바라고 있다”며 “또한 인천아시아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선진국에 이머징 마켓까지 진출 셀트리온, 터키 램시마 판매허가

셀트리온이 터키 의약품 허가기관인 보건부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램시마’ 제품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터키 보건부는 류머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등 램시마에 대해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판매를 허가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부터는 터키에서 램시마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에서 램시마를 판매하게 되는

파트너사는 터키 상위권 제약회사인 MN제약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램시마는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시장과 더불어 이머징 마켓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선진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머징 마켓 진출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일에는 일본 의약품 허가기관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램시마의 제품판매 허가를 받았다.

/홍현기자 hhk@kyeongin.com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사무소에서 열린 ‘사물인터넷(IoT) DIY(Do It Yourself) 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스마트 신제품인 ‘셀프 클럽’을 살펴보고 있다. ‘셀프 클럽(Self Club)’은 사용자가 음악과 불빛이 나오는 헬멧을 쓰면 유흥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스마트 기기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내 손으로 만드는 스마트기기

전국 첫 사물인터넷 DIY센터 송도 개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기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DIY 센터’가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사무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평소 사용하는 각종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하고, 제작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의 사례로는 포크에 센서를 부착해 식습관을 파악하

는 제품 등이 있다.

시민들은 아이디어 발굴, 실제 구현, 시제품 제작, 개발 완료 후 제품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센터에서 지원한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IoT DIY 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꿈을 실현하고,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IoT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자 hhk@kyeongin.com

인천공항, 이번주말 ‘최대인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계성수기(7월 19일~8월 17일) 공항이용객을 지난해보다 4% 증가한 414만여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기간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13만8천237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8월 3일에는 약 15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공항의 역대 최대여객 기록은 지난해 8월 4일의 14만7천668명이다.

공항 혼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선 출국여객 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일평균 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년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30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항 혼잡완화와 비상상



해외여행객 하루 13만명 복직

특별대책기간 지정 비상근무

주차장 확보·심야 버스 운행

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별근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공항 혼잡에 대비해 국제선 체

크인카운터 18개를 증설해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보안검색 공간을 확장하고 보안검색대 6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여객이 집중되는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일부 출국장의 보안검색 운영시간을 평시보다 30분 앞당겨 운영한다.

여기에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공항 인근 도로에 교통통제 안내원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외곽주차장을 추가 개방하는 등 터미널 안팎에 7천여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 이뤄지게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대 입국 승객을 위해 일부 서울행 버스 노선의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매일 오전 3시 50분까지 공항과 서울역, 영등포역, 강남버스터미널 등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심야버스를 일 4회 운행한다.

/차홍빈기자 sky@kyeongin.com

공항철도 개통 7년만에 2억명 돌파

공항철도 이용객이 개통 7년만에 2억명을 돌파했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통후 7년4개월만인 15일 오후 누적 이용객이 2억1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1인당 4번씩 공항철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이용객은 개통 첫 해인 2007년 일평균 1만3천212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2월 29일 전구간(서울역~인천공항역)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15일까지 집계된 일평균 이

용객은 개통시기의 10배를 넘어선 17만1천669명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공항철도 심혁윤 사장은 “공항연계철도와 노선 주변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철도, 빠른 속도와 6개 환승역을 통한 공항철도의 차별화 등을 적극 홍보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 누적이용객 2억명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차홍빈기자 sky@kyeongin.com

인천경제 브리핑 I

유럽시장 개척단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성과를 꾀할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시장개척단은 오는 11월 2~12일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크로아티아(자그레브), 핀란드(헬싱키) 지역에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바이어와 만나 수출 가능성도 타진하게 된다. 시장개척단에는 해외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및 알선, 차량 임차, 통역 지원, 항공료 50%(업체별 출장자 1인에 한함)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 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남동구 기업지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032-450-0534 또는 032-450-1138)나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51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정보산업,美차부품 납품계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보산업이 미국 보그워너 모스텍사(Borg Warner Morse TEC)와 30억7천144만4천758원 규모의 자동차 엔진 부품(BODY-TENSIONER-MACHINED FORD)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식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247억3천933만9천343원의 12.42%에 해당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정보산업은 해당 부품을 2020년까지 공급하게 됐다.

정보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사업을 하는 미국 보그워너사 유럽공장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고, 이번 계약으로 미국

공장에까지 납품하게 됐다”고 했다.

/홍현기자 hhk@kyeongin.com

GSI, SKT에 중계기 공급

인천시 남구 소재 지에스인스트루가 SK텔레콤과 112억7천815만7천원 규모의 중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식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547억4천950만9천922원의 20.6%에 해당한다. 지에스인스트루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중계기는 LTE서비스용 광중계기 마이보스(MIBOS) 10여종으로 물량은 3천500여개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물량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에스인스트루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계기 물량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자 hhk@kyeongin.com



영흥도

▲상기 사진들은 단지내 실제 거주중인 사진입니다.

고급 별장형 전원주택 매매

① 정남향. ② 식수 상수도입니다. ③ 고급 내·외장제와 인테리어 (1층, 2층 구조 선택 가능) ④ 인천, 시흥, 시화, 안산지역 출퇴근 가능. ⑤ 부동산 투자까지 양호 착한 가격입니다. ⑥ 계단식 단지 조성으로 전망 최고 혐오 시설 없는 청정지역.

[토지 + 주택 + 정원 + 텃밭 + 테라스 = 파격매매!]

* 40여세대 마감임박 현장방문 서둘러 주세요!

매매 문의 032-883-0900 (완공해서 분양중)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31번길 72-2(구 영흥면 내리 1015-30번지)



“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

선진의정을 구현하여 구민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http://www.seo.incheon.kr/family

수원가톨릭대 총장에 유희석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이우훈)는 16일 유희석(안드레아·54·사진) 신부를 수원가톨릭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총장은 1993년에 사제서품을 받아 5년간 본당 사제로 활동했다. 1998년 이탈리아 우르바노대학에 입학해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8년부터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왔다. 한국사회 사제의 사목활동이라는 연구주제를 천착해 온 그는 ‘그리스도교 인간 이해(공동저서)’ 등을 저술했다.

유 총장 취임 미사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수원가톨릭 대학교 대성당에서 개강식과 함께 열린다.

/유은총기자 yooec88@kyeongin.com



경기경찰청, 협력단체 방법간담회

경기지방경찰청(청장·최동해)은 16일 경기청 5층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시민경찰·어머니폴리스·학부모폴리스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 강화 및 4대악 근절을 위한 2014년 경찰협력단체 방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소 치안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정정숙씨 등 42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비롯해 협력방법 활성화 방안, 4대악 근절 추진사항 보고 등을 진행했다.

최 청장은 “열악한 치안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찰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찰협력단체의 지역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윤승경기자 yoon@kyeongin.com

하남시, 구직희망자 일일취업특강 호응

하남시가 사전신청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시청 상황실과 하남경영고등학교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층별 일일취업특강’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강은 고령자, 하남경영고등학교 3학년, 결혼이주여성 등 5개 계층 사전 신청 구직 희망자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취업역량 강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외교부 ◇과장 인사 △해외언론담당관 조성관 △재외공관담당관 강형식 △외교사절담당관 조기중 △동북아과장 오진희 △서남아태평양과장 김동배 △아세안협력과장 정의혜 △중남미협력과장 고문희 △중유럽과장 서빈 △인권사회과장 이경아 △국제안보과장 이철 △조약과장 한승호 △영토해양과장 정광웅 △재외동포과장 정강 △북핵정책과장 최희덕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배병수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박선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소기홍 ◇고위공무원 전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우경중 △기획조정실장 김인수 △권익개선정책국장 이충호 △행정심판국장 황해복 △고충민원심리관 신근호

금융결제원 ◇승진 △전무이사 신동원 △상무이사 김영준

문화일보 ◇편집국 △전국부장 한강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현택(중앙일보 기자)씨 부친상=16일 오후 3시 57분. 빈소:목동성당 장례식장. 발인:18일 오전. (02)2648-6649

본사손님

▲이태영(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씨=인사

연금복권 520 <제159회> 추첨일: 2014년 7월 16일									
1등	월 500만원 × 20인	2 조	7	7	8	3	7	9	
		6 조	2	0	1	6	4	0	
2등	1억원	1등의 앞뒤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	7	6	2	4	4	
4등	100만원	각조			2	3	6	2	5
5등	2만원	각조					9	7	5
6등	2,000원	각조						8	7
								0	2
7등	1,000원	각조							7
									1

‘생활고’ 절도범가족 도운 경찰

휴일반납 시 생계비 혜택 받게 해

평택署 김준환 형사, 남다른 선행

20대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형사의 도움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되게 됐다.

평택경찰서 김준환(29·사진) 형사는 최근 생활고를 이겨 지나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박모(26)씨를 조사하던 중 박씨가 임신중독에 걸린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이 등 2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충동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보다 가족들의安危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박씨의 부인은 임신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 중 1명도 심장발달 미숙으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 들어와 있었다.



이에 김 형사는 박씨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휴일도 반납한 채 복지제도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면서 행정기관들을 쫓아다니는 끝에 평택시의 도움을 받아 기초수급 신청은 물론 월 8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평택경찰서는 김 형사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일조했다.

김 형사는 “평택경찰서 소속 형사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평택/김준호·민용기기자 muk@kyeongin.com

군포·의왕 초중고 교감 78명 워크숍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정재용)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평화교육연구원에서 군포의왕 지역 내 초·중·고 교감 7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운 스님의 ‘대한제국 국새가 돌아왔다’를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반환운동을 통한 나라사랑의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강연 등이 진행됐다. 정 교육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교육 혁신 풍토를 조성하고 365일 청렴한 생활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군포/윤득홍기자 ydhr@kyeongin.com

도율곡교육연수원 ‘원탁토론광장 직무연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강지원)은 15~16일 초·중학생, 초·중등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원탁토론광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두 15시간 11개 강좌로 진행된 연수는 ‘원탁토론이란?’ ‘소통과 공감의 회의진행법’ ‘패널토론·그룹토론’ ‘미래를 개척하는 리더의 길’ 등의 주제로 초·중·고 교장·교감 12명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강 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연수는 올바른 토론 및 회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조손 가정에 ‘사랑의 집수리’

우리농업자기기운동 경기본부

(사)우리농업자기기운동본부 경기지역본부(본부장·송명규)는 지난 15일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 유정재 부분부장, 이병택 안성시지부

장, 윤택구 죽산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대 조손 가정의 집을 보수해 주는 ‘함께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송 본부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아 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에 농촌지역 어려운 가정의 넓고 오래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도내 기관·단체·학교 잇단 ‘상생 맞손’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본부장·권춘택)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고품질 전력 공급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전력기술 컨설팅 및 고압설비 고장시 긴급 복구 지원, 동해계 전력수급대책기간 고객 수요관리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장시 비상자재 우선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및 고장시 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 것에, 또 SK하이닉스는 전압 강하 피해 발생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경기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연맹장·박기춘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사당에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 청소년들은 앞으로 연합회를 통해 직공예, 떡메치기, 숲속힐링, 에코하이킹, 수상생물체험 등 다양한 농촌 활동을 갖는다. 이날 박 연맹장은 “연합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이 도농교류 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iyoung@kyeongin.com

“신 경영시스템으로 글로벌 도약”

표주영 교촌에프앤비(주) 사장 취임

좋은 재료, 바른 먹거리를 선도하는 교촌에프앤비(주)(회장·권원강)가 16일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그룹경영지원본부 표주영(사진)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

표 신임사장은 삼성물산 기획실장, 호텔신라 사업 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8년간 삼성그룹에서 마케팅 및 사업기획, 기업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온 바 있다.

특히 2001~2002년 사이에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와 국제재무분석사(CFA)를 취득한 바 있어 리스크 관리와 투자 분석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신임 사장 선임은 선진화된 경영시스템 도입



계획이다.

표 사장은 취임사에서 “교촌그룹이 가진 창의적인 경쟁력을 살려 남들보다 앞선 혁신적 고객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성기자 donald@kyeongin.com



소외층 이동편의 지원 “사회책임 다하는 공기업”

지역난방공, 도공동모금회에 차량 기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김성희)는 16일 본사 현관에서 ‘사랑의 차량지원’ 행사를 열고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3대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난방공사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난방공사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3대(스타렉스 1대·모닝 2대)를 전

달했다.

김 사장은 “지역 소외계층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적은 수량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광주 곤지암초, 학부모회와 진로교육

광주 곤지암초등학교(교장·김화형)는 16일 행복한 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학부모회(회장·이규진)가 주관한 가운데 ‘꿈바라기들의 꿈꾸는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마련했으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직업설계 능력 배양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의 조각가, 바리스타, 동물사육사, 네일 아티스, 기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쌀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100여kg의 쌀을 모아 학생회에 전달,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도 실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용인동부署, 찾아가는 사고예방 교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정승호) 교통경비계는 16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여산관광과 뉴신명관광 영업소에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동부서는 지난 9일 용인시내에서 3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시외 버스기사 음주 사건을 계기로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운전기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DMB 시청 금지 등 적용 범주와 안내와 시청각 자료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수원서부署, 광역버스기사 안전교육

수원서부경찰서(서장·조희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오목천동의 용남고속버스회사를 방문해 광역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버스 사고 통계, 중요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 사례 및 사고 영상물 시청,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 강조 등 광역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키며, 안전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안산/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IPA, 입주기업과 북항일대 대청소

인전항만공사(IPA)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위해 북항 일대를 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청소에는 IPA 임직원과 북항 부두운영사,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용기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7t 가량의 생활쓰레기와 슬러지 등을 수거했다.

남태희 북항사업소장은 “항만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북항 이용 기업과 고객들에게 깨끗한 항만 환경과 안전한 물류여건을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민주평통 계양구협 탈북청소년 강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건계약구협회의(회장·최재현)는 지난 14일 중앙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탈북청소년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경위,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은초-삼성초 전교생 공동미술전

인천시 강화군 불은초등학교(교장·최병태)와 삼성초등학교(교장·정종숙)는 16일 조선시대 군사 유적지인 광성보 안해루에서 공동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두 학교 전교생이 수업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만든 민화·수묵화, 목판화와 염색 작품, 테라코타 등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됐다. 두 학교 어린이들은 개막 식전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 행사를 더욱 빛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오손도손’ 전교생 봉숭아 물들이는 날

텃밭서 키운 꽃잎 따 찢고 손톱 물들여

주안초 4년째 전통풍습 자연 체험행사

“제가 씨도 뿌리고 직접 따서 한거예요, 예쁘죠?”
16일 오전 11시에 인연 주안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이 조별로 둘러앉아 봉숭아물 들이기에 참여했다. 저마다 학교 뒷밭에서 직접 따온 봉숭아꽃을 절구에 찧은 후 백반에 섞어 손톱에 붙였다. 아직 서툰 손길은 도와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 움을 주고 받으며 오순도순 봉숭아물을 손톱에 입히고 있었다. 앞이 모자라 세 손가락만 하고도 좋아 하죽거리라는 친구도 있고, 몇몇 친구들은 신기한 봉숭아물을 입힌 손가락을 몇번 쳐다보고 있다.



신세계百 송의동서 집수리 봉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16일 인천시 남구 송의동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신세계 인천점의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경영활동 중 주력사업으로 올해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러브하우스 집수리 봉사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은 인천지역에 있는 불우이웃의 노후된 집을 방문해 수리해주고 있으며, 올해도 매달 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등의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 2010년 1월 집수리 봉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55개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 인천점 이준성 점장은 "우리 주변을 살피며 면 정갈 열악해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을 많이"고 말했다.

/정문기자 jw33@kyeongsin.com



여경협 인천지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여경협)가 지난 15일 세라토 인첸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9년 창립한 인천여경협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 한 여성들로 구성된 법정 단체다.

인천 여경협 초대 회장인 김한숙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20년 전에 비해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재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정부의 지원시설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산베로써 보람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후배 여성 기업인들의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희 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발전이 곧 협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개별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yeongjin.com



비전기업협 선택제 일자리 관리자 교육

(사)인천광역시 비전기업협회(회장·안재화는)는 16일 인천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 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회원사의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무법인 사립&사립"의 박현진 대표 노무사의 강의로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은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비전기업협회가 함께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50% 1년간 지원(월 80만원 한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100% 2년간 지원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염경준기자 kjy@yeonjin.com



가천CEO아카데미총동문화 성금

인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건호)는 16일 가천 CEO아카데미 총동문회(회장·김익복)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선의의 모금 635만원을 보내냈다고 밝혔다.

김익복 총동문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녀와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건호 모금회장은 “지역 사회의 리더들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큰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의의 발전에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회답했다.

한편 가천CEO아카데미(총장·이길여)는 2010년 1기생 65명이 입학한 이래 총 3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에도 건강강연, 인문학, 문화, 예술, 리더십, 자선강연, 노후생활 설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승재기자 isj@yeonjin.com



남동산단 재난대비 유관기관협 창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조성태)는 16일 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남동산단 재난대비 유관기관협의회' 창립모임을 개최했다.

창립모임에는 인천시와 남동구청, 인천공단소방서 등 10여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남동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비상연락망과 재난대응 매뉴얼 등 필요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안전교육과 합동안전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교역의 이창인 조성태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는 통합적인 재난대비 시스템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기자 kyj@kbyeongin.com

광고문의 인천 032) 861-3204
수원 031) 231-5271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INCHON 2014 ASIAN PARA GAMES ORGANIZING COMMITTEE

환영행사

송도세계문화축제
Songdo World Culture Festival

'맥주, 문화를 만나다'

2014년 9월, 송도세계문화축제가 찾아옵니다!

2014.9.12(금) ~9.20(토)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 뒷편 야외광장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송도축제는 국내 최대 맥주축제라는 신기원을 수립하고,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인천송도를 최고의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는 2014송도세계문화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스 입점 문의 : 032-830-0600

- 마실거리 - 세계 맥주 · 막걸리 · 와인 · 음료브랜드 등 / ● 먹을거리 - 치킨, 햄, 퓨전스낵 등 안주거리와 간식거리
- 알릴거리 - 축제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기관 · 기업 등

주최

송도세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SONGDO WORLD CULTURE FESTIVAL COMMITTEE

경인방송 **FM 90.7** MHz

www.songdobeer.com

| 참성단 |

제헌절 아침

달력에 빨간 날—노는 날이었다가 까만 날로 돌아온 제헌절(制憲節)은 ‘제법절(制法節)’ 또는 ‘제율절(制律節)’이기도 하다. 憲, 法, 律이 모두 법이다. 그런데도 ‘제헌절’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 중에서도 으뜸 법이자 모법(母法)인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law, rule, regulation, act(행위, 법률)와 constitution 또는 constitutional law(헌법)는 구별된다. 그런데 constitution이 ①구성, 구조 ②체질 ③성질, 성격이라는 뜻이 앞서듯이 한 나라의 헌법(國憲)이란 그 나라 국민의 구조와 성격에 맞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가장 흔한 법 단어 law, laws만 해도 속어로는 ‘이런!’ ‘야단났네!’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률, 법령이 엉터리로 실천, 집행되고 법도와 율도(律道)가 형편없이 일그러져버린 꼴을 목격했을 때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가 바로 ‘law!’가 아닌가 싶다.

엄격하지 못한 법, 악질 살인범 흉악범에게도 철퇴가 아닌 솥방망이로 때리는 시늉만 하는 법은 법도 아니다. 중국 신화 사동신은 지난달 17일 ‘어제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투르판(turfan吐魯番) 재판소에선 작년 6월 동 자치구에서 24명의 사망자를 낸 습격사건 범인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판결이 사형이면 그 집행엔 지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교도소가 아닌 재판소다. 집행하지 않는 사형 자체도 위법이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사형수의 권리보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찬성국은 유럽 쪽 국가들, 반대는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였고 미국과 러시아 한국은 기권이었다. 웃기는 건 사형 집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기권한 미국의 두 얼굴이다.

자루하기 짝이 없는 재판 과정은 또 어떤가. 그 역시 일종의 허례허식과 따분한 요식행위, 그런 법정 쇼에 불과하다. 욕설 ‘이 XX’를 연상케 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재판, 국가전북기도 혐의에도 수십 명의 변호사가 엉겨 붙는 재판 소리니! 그제 1년이 다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직도 잡지 못하는 도망자 유병언을 비롯해 모조리 사형→즉각 집행 감이 건만 그 지루한 법정 쇼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오늘 또 돌아온 제헌절 아침, 답답하고도 불쾌할 따름이다.

오동환 객원은설위원



이 민 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인간은 자동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존재 아닌

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

삶을 부여 받았다.

우리모두 집단화 틀 속에서

벗어나 홀로 서도록 노력해야



| 발언대 |

외국인 무료진료



김 미 수

광주시보건소 민원진료팀장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조건없이 서로를 인정하며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산다는 것은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타심은 이기심’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말처럼 타인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으로 귀결된다. 광주시보건소는 제도권 의로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매월 둘째 일요일 뜻있는 일반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 봉사단체와 연계해 각종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다.

광주 외국인근로자 센터 등 6개 관련 단체에 약품을 지원하며, 입원 및 수술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내 병원 등과 연계해 주는 다양한 의로서비스는 이들의 건강권 보호와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7년전부터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고있는 필리핀 에두와도(57)씨는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엄청난 차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부

우상 섬기기에 맹목적인 우리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모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외관상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일 수가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늑대 소년과 같이 자연형태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 모습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험악한 노력과 수련을 닦았다.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어쩌면 모두 자기와 같이 생긴 어른과 스승을 따라 익히고 또 익혀서 복잡한 현대 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순전히 원숭이처럼 흉내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흉내내기를 바란다. 어린이의 목표는 어른의 현재이며 교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 가지고 태어난 모난 개성은 동그렇게 닳아 어른이 되면 어느새 개성없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교육은 이런 흉내내기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만 들리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인간 각자는 자기 교육의 길을 가고 개개인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쩌면 일인지 커가면 커갈수록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길을 가고 그 이상과 틀 속에

몰여려 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 각자는 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를 떠나 남이 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집단의 행동양식과 규범, 사고방식 속에 만족하게 되며 우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간다. 그들이 도달하려는 목표에는 제각각 어떤 전형이 설정돼 있다.

인기 있는 가수의 노래나 춤 동작, 인기개그맨의 말과 행동, 아니면 어느 소설의 주인공이 그들의 우상이 돼 생활과 사고를 지배한다. 집단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자기 집단화와 비타협성이다. 그들은 선입견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집단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단 속에서 자기만족을 얻으며 자기 열등감을 해소시키려 든다. 나 대신에 자주 우리라는 말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자연·학연·혈연을 치켜세우고 미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유명한 누구누구도 잘 아는 우리 대학, 고향 선배와 같은 말로 장황하게 주위사람들에게 율타리를 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보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집단심리가 작용하면 자기 구성원은 무조건 좋게 평가되고 타 집단의 구성원은 나쁘게 평가하는 사회심리학적 병폐가 나타난다. 자기 집단의 사람들에게서는 장점만을 보려는 맹목이 그를 비이

성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타 집단 소속원이 잘못하면 논리정연하게 잡잡뭇을 따지지만 자기집단 소속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이해심이 크다.

우리네 조상들 역시 제 마누라, 자식 자랑하는 놈을 풍수라 했고, 못난 놈이 가문 자랑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기 우상을 섬겼으면 남이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고 모른 척했으면 오죽 좋으랴? 그러나 우상섬기기에 맹목이 된 현대인들은 남의 것은 우상으로 보고 자기의 우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니 딱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인간의 미지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갑질 추구에서부터 근원 추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참으로 각성이 필요하다. 어쩌하여 밖의 것에 관심을 돌리고 밖에 있는 것만 찾으려 다니는가? 자기에 관심을 갖고 집단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상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길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길을 같이 가준 사람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으며, 결국 자기 운명의 찬별을 따라 더듬거려야 간다.

우리 모두는 자동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 삶을 부여받았다. 끝으로 필자는 집단의 우상에 자기 얼굴을 새기지 말고 홀로 서도록 노력하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 노트북 |

김 영 준 / 인천분사 경제부 차장



이건음악회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인 이견창호가 주최한 제25회 이견음악회가 이달 초 시작돼 인천과 고양을 비롯 국내 5개 도시에서 청중과 만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인천 도화동에 본사를 둔 이견창호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1990년부터 매해 해외 정상급 솔리스트, 또는 실내악단을 초청해 무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견음악회를 통해 국내 음악팬과 조우한 단체로는 체코의 탈리히 현악 4중주단을 비롯 독일의 무자카 안티쿠아 필름, 베를린 필하모닉 목관 5중주단 등 다채롭다. 특히 현지에서 얻은 명성에 비해 국내 음악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공연기획사들이 내한 공연 유치를 주저한 단체와 솔리스트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기자가 경험한 첫 이견음악회는 2002년 제13회 때였다. 부산에 거주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던 기자는 이견음악회의 부산무대에 선 무자카 안티쿠아 필름(MAK)의 연주회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라인하르트 과벨이 이끄는 MAK는 최정상급의 고음악(옛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 정적음악·원전연주로도 불림) 연주단체다.

1973년 과벨과 필름 음대 동창생들로 창단한 MAK는 주로 1650~1750년에 쓰여진 바로크와 종교음악 연주에 집중했다. 당시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고음악단체의 연주를 실황으로 들으며 알게된 경험들(독특한 연주법과 그에 따른 표현력 등)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MAK는 2006년 과벨의 건강상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접할 수 없는 단체가 돼 버렸다.

다양한 문화를 갈구한 전국 문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이견음악회가 올해로 25주년(Silver Jubilee)을 맞았다. 이견음악회를 위해 초청된 베를린 필하모닉 목관 5중주단의 호르니스트 퍼거스 맥캘리럼은 “한국에서 25년간 무료 음악회를 여는 기업은 이견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많은 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큰 그림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이 25년째 지속하고 있는 무료 연주회로 인해 인천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기는 요즘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전화 031)231-5391~4 | e메일 opinion@kyeongin.com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 편집국장 박현수

본사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취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 본사 인천시 남구 학익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 3209 정취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체육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인천동광본실 752-0007 백담사교 문의 751-7077

서울 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801호 ☎150-608 전화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선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012-중-24081호

www.conel.co.kr

조루증, 약물로 극복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조루에 대해서 잘실하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시도를 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다. 환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조루증은 사정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30~50%의 남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조루증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루증은 남성이 수학적 사정장애 이 부족하여 스스로 원하기도 전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사정해버리는 증상으로 성의학에서는 보통 절삭입 후 약 2~3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현재 조루의 치료는 수술법과 비수술법이 있고 원인과 상태에 따라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한다. 수술법의 경우 음경의 감각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간단한



그림: 강철수 화백

조루, 음경 - 귀두 확대
동시에 약물로 간단히 치료

수술이든 이보다 더 간단하게 감각을 둔하게 하는 수술이 약물주입법이다. 약물주입법은 비수술적으로 10분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로서 절개나 봉합과정이 없는 비수술적 치료이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효과가 없으니 한번 더 재 주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며 효과적인 시술법이다.

‘실제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 조루가 치료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정시간이 조금 연장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하루빨리 비노기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조루 수술 및 약물주입법 이후 체질에 따라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염종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코넬비뇨기과의원
☎032-423-8270

인천롯데백화점 뒤

NAVER

코넬비뇨기과

를 쳐보세요

"올 여름엔
계산자연수영장에서
만나요"

7월 10일 개장

인천계산동
계산자연수영장
(풀)

- 샤워장 무료
- Culligan 정수기 사용
- 넓은 주차장 확보

※ 교통편: 버스1번, 79번, 770번
계산동 자연풀장 하차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5-1

회사가 Tel. (032) 545-3700

문학산
청학(숲속)풀장
청학 숲 유치원

취사가능

仁川의 名物!! 7월 19일 개장!

- ▶ 문학산 해발 90m고지, 울창한 숲, 맑은물
- ▶ 풀장 水: 문학산 악수터에서 나오는 山水
- ▶ 맑은 공기 시원한 산바람
- ▶ 최신 A1 Filter 정수기 사용

성인풀장 유아풀장 영아풀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27

약도

출신터, 연남아트, 숲속, 청학풀장,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 시내버스: 105, 46, 64번 (6번, 8번은 승도역 하차)
※ 마을버스: 523번

인터넷한글주소
청학풀장 or 청학유치원 TEL. 032) 832-0135

ㅣ 데스크 칼럼 ㅣ



배 상 록
정치부장

여검사

얼마전 검찰에서 조용한 행사가 하나 치러졌다. 검찰 릴레이 포럼. 지난 2월 출범한 대검 여성정책팀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지난 2005년 수원지검에서 조직폭력 범죄를 맡았던 정옥자 검사를 비롯해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취 분야를 전담했던 여검사 4명이 나서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지난달,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여성검사, 대선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후배들에게 강연한 데 이어 두번째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여성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검사 열명중 세명은 여성이란 얘기다.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500여명 중 여성이 18명에 불과한 상황이니, 실제 수사현장에서의 체감 비율은 더 높아진다. 지난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 신규 검사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이후 검찰의 ‘여초(女超)현상’은 이제 표현 자체가 진부한 상황이 됐다.

재보선 수원을 ‘새누리 정미경-새정치 백혜련’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지금에야 도통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내몰리기 십상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여자가 무슨...’이라는 말이 별 거부감없이 통용됐던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똑똑해도 ‘여자가 무슨’ 한마디면 주변사람들 대개는 고개를 끄덕여줬고, 당사자인 ‘여자’들은 이같은 편견에 맞서며 기궤해야 ‘그 여자 참 지독하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정 검사가 회고하듯, 당시 수원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여자에게 걸리면 망신이니 싸움을 하지 말자’는 자정 결의까지 나온 것도 맥은 좀 다르되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여성비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성인 검사는 여전히 ‘여검사’다. 수년전, 내연관계였던 남성 변호사로부터 승용차와 핸드백을 선물로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 검사는 ‘벤츠 여검사’로 지칭되며 온갖 지탄을 받았다. 사건의 본질은 검사로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였지만, 시간의 관심은 그보단 이 검사의 사생활,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에 모였다. 젊은 여검사였기 때문이다. 여성 검사들의 수사상 성과나 실적들도 대개는 섬세함, 온정, 부드러운 같은 수식어와 함께 ‘여검

사’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7·30 재보선에서도 여검사가 화제다.

수원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는 같은 대학·사시 1년 선후배 관계로, 둘다 검사 출신이다. 검찰을 떠나는 과정도 엇비슷했다. 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

출신 너무나 닮은 ‘女검사간 대결’ 흥미진진

시절 감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책을 발간하고 검사직을 그만뒀다면, 백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 검찰이 부끄럽다”며 사표를 냈다. 각각 여야로 나뉘어 상반된 길을 걷게 됐지만, 둘다 상명하복의 검찰내에서 권력에 맞서 웃을 났었다는 공통의 개인사(史)를 갖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거물 대 신인, 토박이 대 낙하산 등등의 구도를 형성하며 나름 열전이 이어지고 있다지만, 구경꾼의 입장에선 이 ‘여검시간 대결’이 자못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과반의석 회복에도, 야당의 세월호 민심 이어가기에도 그닥 관심 없는 유권자들에게, 그것도 삼복지경 휴가절정기에 치러져 투표율을 격정해야 하는 재보선에서 그나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치가 성사된 셈이다.

기왕이면 이 재미있는 대결이 가문의 단비 같은 흥행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구태와 이전투구가 판치는 게 작금의 선거 판이었다면, 적어도 이 두 후보의 대결만큼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섰던 검사의 기개를 겨루는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원칙에

권력 부당함에 맞섰던 기개 겨루는 장 됐으면...

충실해 범죄꾼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수십년 검찰의 폭탄주 회식문화까지 바뀌려면 여검사들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재연된다면, 아직 이 사회 어디인가 발톱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가 무슨...’ 따위의 편견은 남자들의 비겁한 자기합리화였을 뿐이란 걸 다시 증명하게 된다. 대한민국 여검사 출신다운 정정당당한 승부라면, 유권자가 누구를 택하든 두사람은 모두 승자가 된다.

ㅣ 기고 ㅣ



남 길 우
경기도 언론정책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소망은 무병장수일 것이다. 불로장생은 역사에서나 옛이야기, 그리고 종교 경전에도 등장한다. 우리나라도 장수사화에 도달해 인생철 심고래하기 옛말이 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2.2%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노인으로 간주하는 65세 이상이 6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 인구는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서 2025년에는 1천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증가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발판으로 100세 시대가 박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시스템이 생애 주기 80세에 맞춰 있는 상태라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수는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창 팔팔한 50~60대는 은퇴가 무섭고 노후가 두렵다. 조기퇴직과 명예퇴

100세 시대, 축복으로 맞이하려면

직이 난무하는 사이에 온 좋게 60세에 퇴직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주위에 서로 야기된, 사랑하는 사람마저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그레이 쇼크(grey shock)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을 못지않다. OECD국가 가운데 1위로, 평균 노인 빈곤율(2010년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4%)의 3배가 넘는다.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여성 노인의 경제상황이 남성 노인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59.2%, 70세 이상인 여성 세대주 가구의 빈곤율은 74.9%에 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가 잘 이뤄져 있지 않아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과 같은 비임금 자영업이나 청소 용역·택배와 같은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로 내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 여실히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39.6%에 이르지만, 노인복지 점수는 100점 만점에 39.9점을 기록해 세계 69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70위)뿐이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들이 노인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레이 쇼크를 행복한 실버사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선택이 아닌 필연적 의무임을 공감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장수를 축복으로 인지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100세맞이라 할 수 있다. 처량하고 서글픈 화색이미지를 지우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어르신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오늘의 과제인 것이다. 비록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네 오랜 정서가 정말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중궁의 유명한 시인 왕발(王勃)의 시 한 구절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세상 끝에 있어도 이웃과 같이로(海内存知己 天涯若比鄰) <두소부지 임촉주(杜少府之任蜀州)>

인천AG 개·폐회식 우려되는 교통대란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요 행사인 개폐막식이 열리는 서구 주경기장 일대에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회조직위는 서구 주경기장 개폐막식 당일 입장권이 모두 팔릴 경우 5만8천명의 일반관람객과 2만3천여명의 대회 관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폐회식 한시간 전후로 차량이 일시에 몰려 도로 마비, 주차문제, 대중교통 노선 연결 부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 연계 강화, 노선버스 증차, 주요 거점별 셔틀버스 배치, 일반 승용차의 권역별 접근 유도 등을 마련했다. 가장 우려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경기장 인근의 유희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4천대), 드림파크 문화재단 일원(2천대), 가정택지 4블록 및 학교부지(2천200대), 가정택지 7·8단지(4천대) 등 차량 총 1만5천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9월 19일의 개회식과 10월 4일의 폐회식에 몰릴 차량은 2만여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최대 1만5천대에 불과해서 5천여대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

는 대회를 70일 앞둔 시점인데도 확보했다고 한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차장 조성비인 시비 6억 2천만원이 6월 26일야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유다.

이같은 교통문제는 주경기장과 직접 연결할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2016년으로 연기될 때부터 거듭 제기되어 왔다. 주차장 문제도 주경기장 관람석이 6만2천818석인데 경기장 내부 주차공간은 고작 1천900면으로 설계한 자체가 문제였다. 인천시와 서구가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예산 타탄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개폐회식 행사는 아시아인의 주목 속에 펼쳐지는 인천AG의 하이라이트이다. 임시주차장 확보가 더이상 어렵다면 관람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경기장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개막이 불과 2개월 남았다. 교통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수립이 먼저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의 불편이 아만치만은 아니었다. 그냥 지나치는 버스 때문에 보통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인천공항발 비행기를 놓친 승객들도 비일비재했다. 출근전쟁이 라기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거주 승객들의 불편이 폭주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알지만 대책없이 갑자기 시행한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6일부터 광역직행버스의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입석 금지에 대한 대책으로 총 62개 노선 222대의 버스를 증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16일 출근시간을 통해 미미함을 드러냈다. 노선 폐쇄와 감차를 감안하면 137대만 증차된 셈이다. 그래서 서울 인근의 경기도내 지자체는 빗발치는 민원에 하루종일 사달려야 했다. 심지어 지하철도 좌석제를 운영하라는 불멘소리마저 나왔다.

용인 흥덕구 각 아파트 승강기에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증차를 위해 폭탄민원을 제기

하자는 안내문이 붙여졌다. 이에 시 공무원들이 주요 정거장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승차안내 및 계도에 나섰지만 승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광역직행버스의 경우 지인 의왕시의 경우 증차에 따른 효과가 없을뿐더러 출발지가 타지역에 있어 대책마져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들도 확실한 증차대책이 없는 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차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분산효과도 있지만 버스전용차로의 용량포화로 속도저하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있다. 승객의 과적이나 입석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건 사실이다. 그래서 좌석제가 나왔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다. 증차가 이뤄진다 해도 출퇴근 시간대를 빼고는 텅텅 비는 노선은 어찌할 건가. 담당공무원들이 기점별로 나가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도 사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도권광역교통본부가를 머리를 맞대고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게 광역버스 좌석제 성공의 정답이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14. 7. 7.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청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7월 17일
주식회사 유니텍
경기도 화성시 불암로22번길 21(삼곡동, 반월공단 602블록 5동B)
홍상민 이 원 두

비아·씨알·캡슐

강 놀라운 발기력 효과100%
미제정품!! 국내 최저가!!
30정 1통, 알미늄 포장 16정/32정

010-5819-5452

kyeongin.com 경인일보

경인일보 / 지면·배너·전광판 광고

광고문의

수원 031-231-5271
인천 032-861-3200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4년 07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1,425,345,000원 중 이익잉여금으로 취득한 우선주 금57,500,000원을 제외한 자본금 1,367,845,000원 중 금1,231,060,500원을 감소하여 금136,784,5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0주를 병합하여 같은 액면주식 1주로하여 발행주식총수 2,735,690주를 273,569주로 감소를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본 회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디오전자 주식회사
인천시 단원구 만해로22번길 21(삼곡동, 반월공단 602블록 5동B)
대표이사 이 주 영

알짜배기금매물

임대사업의 황금밭 - 구마국가공단

- 410㎡ / 827㎡
- 상가2, 주민세대포함 97구, 2005년
- 10×8m 도로코너
- 거품을 쏘옥 뺀 가격

매매 8억6천

월415만 ★ 인수가2억4천

확실히 다름니다! 동장만 확인하십시오.
관리는 제가 100% 책임집니다.

정직한 중개 우영공인중개사
천정삼
010-7113-8585
[소장 : 윤성수/가421-472/경북구미]

M&A

비상장기업 M&A 전문

(주)콜링투

믿음과 신뢰로 다가서는 기업

▶ IPO, 우회상장 ▶ 기업매도 · 매수 ▶ 인수합병 ▶ Funding, SPAC

전화문의

02.597.8338
032.868.3388

▶ 매출: 70억~100억 비상장기업 -- 상환기간 2년
▶ 한국 외국법인의간이 경험 08명

▶ 경영혁신/비즈니스 시스템/프로세스
변화기업의 CEO 출신이 직접 컨설팅

빠르고 안전한 콜배

고객여분의 인원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집엔콜

www.jimncoll.co.kr 예/약/문의

253-6666

신개념 운송서비스!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OK!

공장매매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부근)

2. 면적

(토지) 4,409.4㎡(1,333평)
(건물) 14,051.3㎡(4,205평)

3. 동력

2,300kW

4. 준공연도

2008년 11월

5. 추천용도

전자, 반도체, 핸드폰 부품

6. 매물특징

① 동탄 삼성전자 부근 및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공장
② 1층 ~ 3층 2,000평 클린룸 설치 (1천)
③ 고효율조명(LED)사용, 태양광 풍력발전기 설치

남동대표
공인중개사
사무소

032-815-4014
010-5061-4014

건축공사의
모든 것

★ 주택·상가·공장·개선 공사 ★
리모델링 · 인테리어 · 방수 · 도장
보수 / 보강공사

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 신축공사

☒ 철골구조물공사

☒ 기존건축물공사

☒ 공장신축공사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십시오!

상담전화 010-5678-8295
일반전화 032) 434-8295

보인다, AG 3연패



16일(한국시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인천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이 남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전을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스포츠

마린보이 박태환, MBC배 ‘올 세계랭킹 1위’ 기록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인천 아시아게임 대표 선발전 남일반부 자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과 함께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세웠다. 박태환은 1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

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대회 최고 기록인 1분45초25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자신이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운 한국 기록(1분44초80)에 0.45초 뒤진

자유형 200m 1분45초25

카타르·中 이어우승도전

대회 신기록이다. 또 올 시즌 남자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기록인 캐머런 맥어보이(호주)의 1분45초46도 넘어섰다.

대한수영연맹은 이 대회에서 총목별 1위 선수에게 인천 아시안게임 경영 대표 선발권을 준다. 박태환은 2006년 카타르 도하 대회와 2010년 중국 광저우 대회 자유형 200m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우승으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3연패란 대기록에 도전할

자격을 갖게 됐다. 또 양지원(부천 소사고)은 여고부 평영 100m 결승에서 1분08초83의 대회신(종전 1분09초78)을 작성하며 권민지(서울체고·1분09초41)와 황윤정(인천 안남고·1분12초53)을 제치고 총목 1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남중부 평영 100m 결승에선 김한

준(남양주 미금중)이 1분06초70을 마크, 이재민(용인 상하중·1분07초54)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남고부 점영 50m에선 성시영(경기체고)이 25초33으로, 여고부 점영 50m에선 박진영(인천 안남고)이 27초91로 나란히 우승했다. /임승재·이원근기자 isj@kyeongin.com

AG복싱 선발 편파판정 항의코치 이의신청 기각

상벌위 “명백한 질서문란”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링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김태규 인천복싱협회 코치의 이의신청(경인일보 7월16일자 14면 보도)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복싱협회는 16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김 코치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번 제심도 규정에 위배됐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대한복싱협회 상벌위원

회 규정을 어긴채 징계 대상자인 자신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않고 제명결정을 내렸으며, 시효(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도 넘겨 이날 제심 또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제상벌위원회는 대한복싱협회의 입장대로 지난 3월26일 김 코치가 링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경기장내 질서문란 행위이며, 이번 징계는 경기장질서대책 특별위원회가 내린 것으로 상벌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제명 징

계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번 결과를 조만간 이사회에 보고하고 김 코치에게도 통보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 코치는 이날 결정에 대해 다시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 김 코치는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대한복싱협회에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끝까지 가볼 생각이 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이정준 실업육상 허들 110m 대회新 ‘금’

남일반부 13초65 기록

이정준(인천시청)이 제26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남일반부 110m 허들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이정준은 16일 전남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일반

부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65의 대회신기록(종전 13초96)을 작성하며 명창기(용인시청·14초22)와 원종진(국군체육부대·14초25)을 차례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또 최동일과 이준희(이상 남양주시청)는 남일반부 3천m 장애물 경기에서 각각 9분19초15, 9

분19초89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은 메달을 따냈으며, 홍인기(고양시청)는 남일반부 800m 결승에서 1분50초96을 마크해 김봉수(국군체육부대·1분51초24)를 제치고 금빛 질주를 펼쳤다. 여일반부에선 조준우(인천남동구청)가 400m 허들 결승에서 1분01초54의 기록으로 박종경(경산시청·1분02초89)과 신소연(시흥시청·1분04초04)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쇼트트랙 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전향검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 박승희(22·화성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희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 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16일 “박승희가 은퇴한 이규혁이 이끄는 팀과 합

께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회 참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록을 포함한 가능성을 검토해 본 뒤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승희는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서 쇼트트랙 여자 1천m와 3천m 계주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냈고, 500m에선 한국 선수로 16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여자 간판 스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박승희는 언니 박승주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다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최정상에 오른 만큼 자신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뜻에서 종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한국은 언제쯤 세리머니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축구 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주일에 5일을 지역돌보는 FC안양

학생부터성인까지프로다양

팬 프렌들리 클럽 수상경력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안양이 주 5일을 사회공헌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양은 지난해 창단 때부터 구단의 역점 사업인 사회공헌활동에 최매주 화요일 의왕시 서울소년원을 선을 다해왔다. ‘KB국민은행, 동안경찰서와 함께하는 학교원정대’를 비롯해 안양시축구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2개 생활축구동호회와 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과 함께 했다.

또 올해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축구탐험대’를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

생을 위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학교원정대’, 20~40대 성인을 위한 ‘나도 축구선수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안양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코칭스태프 및 사무국 직원도 참여한다. 이우형 감독을 비롯 코칭스태프는 매주 화요일 의왕시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사무국 직원들은 지역학교를 찾아 진로교육도 한다.

이미 5개 학교에서 22회의 진로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번주에는 비산초를 방문해 5학년의 모든 학생을 만났다.

안양이 사회공헌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 사회에 축구라

는 콘텐츠를 꽃 피우기 위해선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동안경찰서와 함께하는 학교 원정대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고, 지난 6월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팬 프렌들리 클럽을 수상하기도 했다.

FC안양 관계자는 “창단 초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과 만나는 일은 항상 즐겁다”고 말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가평동호인전용야구장 조성

가평군에 사회동호인 전용 야구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군수, 김훈도 데상트스포츠재단 이사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가평군 설악면 선소리 375의 2, 1만㎡ 부지에 야구장 1면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가평군은 부지 제공과 시설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지원을 하고, 데상트스포츠재단은 3억~5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시설비 전액을 부담기로 했다. 완공 후에는 기부채납해 소유권 및 운영권은 모두 가평군이 갖는다. 스포츠 패션기업 (주)데상트코리아가 설립한 데상트스포츠재단과 경기도는 야구장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며 최종 대상으로 가평군을 선정했다. 가평야구장(가칭) 조성으로 가평군 야구동호인들은 그 동안 야구장이 없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가평군 역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등 포화상태의 야구 수요를 일정부분 충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사회동호인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구장이 없는 11개 시·군 등에 친환경 야구장 27개소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78개 사회동호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스포츠 로그아웃 |

분당경영고 농구 도대표 선발

성남 분당경영고가 제2회 도지사기 대회 겸 제95회 전국체전 농구 경기 도대표 선발전 여고부에서 우승하며 도대표로 뽑혔다. 분당경영고는 16일 수원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여고부 결승에서 이하은(25점)과 차지현(15점)의 활약으로 황소리(17점)가 분전한 수원여고를 75-47로 꺾고 정상에 올라 도대표를 확정지었다.

여자농구 외국인 드래프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연맹 사옥에서 2014~2015시즌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실시한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103명이 지원했으며 6개 구단이 2명씩 총 12명을 뽑게 된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성적 역순에 따라 6위 팀이 구슬 6개, 5위 팀 5개 순으로 총 21개의 구슬을 넣어 추첨 순서를 정한다.

핸드볼 김은아 여성MVP

핸드볼 국가대표 김은아(26·인천시청)가 2014 MBN 여성스포츠대상 6월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김은아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2014 한일 슈퍼매치에서 한국 대표팀의 3전 전승을 이끌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를 다친 김은아는 1년이 넘는 오랜 재활과정을 이겨내고 이번 시즌 SK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소속팀의 우승과 대표팀의 슈퍼매치 전승에 힘을 보탰다.

수원북중 시흥야구대회 1위

수원북중이 제3회 시흥시장기 경기 도중학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수원북중은 16일 시흥 소망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소래중을 6-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수원북중 2루수 고명규는 13타수 9안타로 6타점, 도루 5개로 타격성과 타점상, 도루상을 휩쓸었고 대회 2승을 거둔 남호(수원북중)와 방준서(소래중)는 각각 최우수투수상과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江都의 하늘

하늘에는 아직
고려가 어른거린다
고려의 하늘 한뼘씩 퍼다가
백토 버무려 도요에 구우면
영원 그보다 머언 곳으로
비색 무궁한 색깔



행여,
어쩌다 잔 바람결로 氷裂할까 두렵구먼
아으, 가슴앓이 갈구나
아리한 색깔
江都의 하늘은
맑은 얼음판 같은데
한 뼘 구름처럼 고려가 어른거린다.



지난 11일 찾은 고려궁지의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보일듯 말듯 떠다니고 있다. 고려궁지엔 고려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강화 출신 시인 김차영은 강화의 맑은 하늘에 어린 고려를 노래했다.



김차영 시집 '상야환상(왼쪽)', '부름튼 태풍의 눈(가운데)'과 김차영이 쓴 '명도시 풍토기 강화편'이 수록된 신천지(1954년 7월호) 표지.

쉽게 와 닿는 시가 있고, 첫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시가 있다. 전자의 경우 대개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후학의 연구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후자는 작가 개인의 품속에 머물다 잊히게 마련이다.

인천 강화 출신 김차영(金次榮·1922~?)은 후자를 택한 시인이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데다 초현실적인 문장. 김차영은 왜 그토록 어렵게 시를 쓰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시는 사람의 심리를 드러내야 하고, 사회화적이어야 하며, 불가해(不可解·이해할 수 없음)해야 한다. 알 듯 모를 듯한 것이 시다”라고 답하고는 했다. 1950년대 명동을 주름잡던 당대 주류 시인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어울리는 동안 “왜 나는 박인환이나 조항이나 김규동처럼 유명해지지 못하느냐”고 한탄하면서도 “파리에서는 난해한 시를 쓸수록 유명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김차영이 유난히 쉬운 시를 쓴 적이 있다. 1986년 어느날 고향 강화의 맑은 하늘에 어린 고려를 노래한 시 ‘江都(강도)의 하늘’이다.

그는 강화의 곱고 짙은 푸른 색 하늘을 비취색 고려청자로 빚듯이 노래했다. 대중에선 무명에 가까운 이 시인을 인천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집과는 다른 ‘쉬운 시’ 때문이다. 고향은 어려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누구보다 강화와 인천을 잘 알고 아끼는 시인이기도 했다.



강화에서 찍은 염하.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김차영이 읊은 강화의 하늘을 만나기 위해 강화군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뒤편의 고려궁지를 찾았다. 30℃를 넘는 무더위 때 문인지 10명도 채 안 되는 방문객들은 옛 고려의 도읍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이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했다. 맑고 높은 하늘에선 구름 한 점이 보일락 말락 오갔다. 고려청자에 깃든 바로 그 하늘이었다. 이따금 부는 바람은 맺힌 땀을 들이게 했다.

고려는 고종 19년(1232) 몽고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의 요새인 강화로 도읍을 옮기고 원종 11년(1270)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간 이곳을 궁궐로 사용했다. 당시 개성 송악산 자락에 있는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순 없었다.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강화를 떠나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궁궐과 성곽을 모두 헐어야 했다. 강화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땀으로 세운 궁궐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궁지는 ‘궁터’라는 그 이름만으로 옛 강화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도의 하늘’은 1986년 5월 그가 ‘월간문학’에 발표한 시다. 그가 60세가 넘어서야 고향의 시 ‘강도의 하늘’을 쓰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에게 고려의 기운이 담긴 강화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다.

1977년 10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갑곶돈대와 초진진, 덕진진, 광성보 등 전적지 복원을 기념해 강화도를 찾았을 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전적지를 둘러보고 고려의 옛 궁터를 방문해 강화 문화계 인사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화 출신 여류 문인 조경희가 “강화가 이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김차영에게 “시로 표현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가 ‘강도의 하늘’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차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화를 알리고 싶어했다.

김차영은 1954년 7월 서울신문사 출판국이 발행한 ‘신천지(新天地)’에 ‘명도시 풍토기(名都市 風土記)’ 시리즈 ‘강화편’을 썼다. 어렵사리 구해 본 쪽 60년 전에 나온 ‘신천지’에는 김차영의 강화 사랑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6쪽에 걸쳐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명소, 천연기념물과 전설을 지닌 역사의 고장(史의鄕)”이라고 자랑했다.

김차영은 이 글에서 강화의 천연기념물인 탕자나무 두 그루를 빚대 강화의 정체성을 ‘남과 북’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강화를 갑곶리와 화도면 사거리엔 각각 수령 400년이 넘는 천연기념물 78호, 79

호 탕자나무가 있다. 주로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탕자나무의 최북단 서식지가 바로 강화도다. 김차영은 “탕자나무는 우리나라 양대 문화를 형성한 남방계 문화와 북방계 문화가 여기서 교접(交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김차영의 말대로 오늘날 강화는 남북 교류를 애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강화 공동평화산단 추진이나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 연구를 위해 남북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바람이 그 예다. 김차영은 강화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일찍이 내다봤던 셈이다.

김차영은 1957년 5월 ‘시와 비평’에 ‘鹽河水道(염하수도)’라는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내놓는다. 염하는 강화와 김포 사이의 물길을 말한다. 이 물길을 따라 갑곶돈대와 초진진, 덕진진 등 방여요새들이 들어서 있다. 유난히 빠른 유속의 염하

호 탕자나무가 있다. 주로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탕자나무의 최북단 서식지가 바로 강화도다. 김차영은 “탕자나무는 우리나라 양대 문화를 형성한 남방계 문화와 북방계 문화가 여기서 교접(交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김차영의 말대로 오늘날 강화는 남북 교류를 애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강화 공동평화산단 추진이나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 연구를 위해 남북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바람이 그 예다. 김차영은 강화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일찍이 내다봤던 셈이다.

김차영은 1957년 5월 ‘시와 비평’에 ‘鹽河水道(염하수도)’라는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내놓는다. 염하는 강화와 김포 사이의 물길을 말한다. 이 물길을 따라 갑곶돈대와 초진진, 덕진진 등 방여요새들이 들어서 있다. 유난히 빠른 유속의 염하

터뷰에서 “김차영의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고향생각이 나도록 했던 것 같아요. 내 출생지가 평북 강계(江界)고, 살았던 곳이 평양인데, 김차영 선생 고향 강화가 이북이랑 가까운 곳에 있다보니까 명동에서 서로 고향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차영은 1922년 강화 길상면에서 태어나 14세 때부터 인천에서 살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明治)중학교를 거쳐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에서 문과과정을 수료하고, 타나카공업주식회사에 근무했다.

해방 이후 인천에서 한상익 등과 함께 전국 최초의 동인지 ‘문예탐’을 만들었고, 한국전쟁 무렵엔 피란지 부산에서 김경린, 박인환, 김규동 등과 함께 후반기(後半期) 동인활동을 하면서 모더니즘 운동을 일으켰다. 개인시집으로는 ‘상야환상(象牙幻想)’(1969), ‘부름튼 태풍의 눈’(1984), ‘얼굴 그 얼굴들의 여울’(1989) 등 세 권이 있다. 대중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1970년대엔 대한상공회의소 출판부장을 맡기도 했다.

김차영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떠났지만, 늘 인천 문화의 현실을 걱정했고,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는 8·15해방을 기준으로 ‘인천인’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했다. 분단 이후 인천항은 중국, 이북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반쪽짜리 항구가 됐다. 인천은 서울의 그늘 아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북 월남민이 몰려들면서 인천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제일관구경찰청, 수상경찰서, 여자경찰서, 철도경찰서 등 정보·치안기관이 들어서 그야말로 ‘경찰도시’가 됐다. 그가 1·4후퇴 이후 서울로 삶의 터를 옮긴 이유다. 그러나 김차영은 인천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인석 등 인천의 시인들과 함께 전쟁의 불안과 격분을 외치는 시를 큰 종이에 써 하인 천 거리에 내다 붙이는 일을 했다고 김규동 시인의 제자인 맹문재 안양대 교수가 전했다.

어쨌든 인천은 분단 이후, 특유의 지역문화를 형성시키지 못했다. 인천에 수준급 작가·예술인이 나타나도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기고는 했다. 심지어 1947년 2월 인천에 세워진 해양대학교 1년도 채 못 돼 군산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 같은 그의 고민은 1991년 학산문학 창간호에 실린 좌담 ‘인천문화의 재건을 위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좌담엔 당시 운영진 인하대 교수와 백승철 문학평론가가 함께 했다.

그는 좌담 말미에 “자난날 인천이 낳은 비중 있는 문학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김차영 본인의 행적은 구체적인 알려진 바 없이 후학들의 연구가 절실하다.

보통사람 꿈의 무대 ‘4일간의 초대’

99

‘내생애 첫번째 공연’ 26일부터 10월까지 매일 한차례



7월 26일 첫 공연에 참가하는 주부들로 구성된 ‘kakaei 밴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보통사람을 위해 꾸미는 무대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이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매일 1차례씩 썬루무대에서 열린다.

‘공동분모(공연을 사랑하는 보통사람들의 분주한 모임)’라는 부제 아래 모인 15팀이 밴드, 노래, 클래식 음악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6일 첫공연에서는 강렬한 밴드 팀이 관객앞에 선다. ‘서울상경음악단’과 ‘동네밴드’, ‘큐브밴드’ 등 직장인 밴드 3팀은 차려진 평범하다. 주부들이 뭉친 ‘kakaei 밴드’가 로커스트의 ‘하늘색 꿈’을, 평균연령 70대의 ‘한마음실버밴드’가 오송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로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8월 23일에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를 수놓는다. 음악으로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는 착한 중장년 ‘베아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모니를 지어내는 ‘부천장애인합창단’, 통기타 반주로 추억을 불러들이는 ‘포크하모니’, 청량한 음색을 자랑

하는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3인조 혼성 퍼커션 밴드 ‘노래하는 풍선껌’이 생애 첫번째 공연의 감동을 이어나간다.

9월 27일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으로 가을을 맞이한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초등학교생들로 구성된 ‘준클라양상블’, 오키나와 감자 모임 ‘더뮤즈 오키나와 앙상블’ 등이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 10월 18일 하이라이트 공연의 출연자는 관객반응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들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무대를 위해 경기도립예술단이 손을 보탠다.

경기팝스앙상블과 경기팝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멘토로 나서 공연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계절에 대영상디자인과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꾸민다. 무료공연. 문의:(031)230-3200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종교간 교류 국민 상생 이끌어

| 인터뷰 | 채수일 경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종교도 자본주의 시장체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보다 생명 가치가 우선입니다. 그게 종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KCRP) 채수일 대표회장(한신대 총장·사진)의 말이다. 그가 이끄는 KCRP는 용주사, 정조대왕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 11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개최
남북관계 평화 계기 만들것

태양이 작렬하는 하늘아래 선 모든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종교인이 주도한 행사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구분이 없었다. 추모제가 끝난 후 만난 채 대표회장은 “종교인들이 감동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서로 다른 종교인들과 화해하고 대화하는 것은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푸는 열쇠 효과를 만들어 준다”며 종교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교파를 뛰어넘어 국민의 상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설립된 KCRP의 대표회장으로 일하면서 종교의 화합을 위해 어려운 시국마다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뜻을 모아 사회에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세월호참사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종교인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해 종교지도자들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화해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컵을 맞아 경기도종교인들이 2014개의 축구공과 2014컬러의 축구화를 가지고 방북, 청소년 축구팀과 경기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세월호참사와 지방선거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국내사정이 안정되면 다시 이 일을 추진해 남북관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1984년 파리의 품피두센터 / 백남준아트센터·이영환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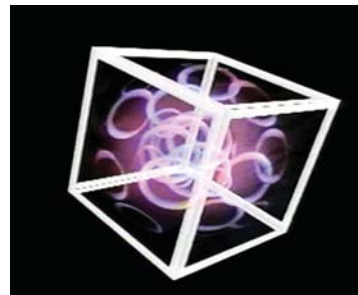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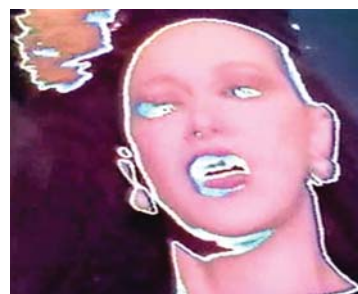
응답하라! 1984 굿모닝 미스터 오웰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

제작 30주 현대적 의미 재조명

영상·설치작품 등 50여점 전시

오늘 오프닝 퍼포먼스 다채



백남준아트센터(관장·박만우)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특별전시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대표적인 위성 프로젝트로, 1984년에 제작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의 제작 30주년을 기념하고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원격통신이 가져다 준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사진
영국의 작가 조지오웰은 1949년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독재자인 ‘빅 브라더’에 대항해 인간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발표했다.

그는 “1984년이 되면 매스미디어가 인류를 지배하리라”고 예언했다. 반면 백남준은 그의 예언에 대해 “절반만 옳았다”고 말하며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소통을 보여주는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비롯해 로렌조 비안다, 송상희 등 총 17명(팀)의 작가가 참여한다. 백 작가가 1984년 1

월 1일 파리의 품피두센터, 뉴욕의 WNET 방송국을 연결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엑소네모가 만든 ‘슈퍼내추럴(Supernatural)’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 전시의 빠지지 않는 행사인 오프닝 퍼포먼스로 엑소네모, 김태윤&윤지현, 폴린 올리베로스 등 작가가 오늘날의 미디어 네트워킹을 각기 다른 퍼포먼스로 깨닫 당일 선보일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지난 1984년 당시 전 세계 약 2천500만명이 관람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인터넷, 위성, 원격 소통을 다루는 다양한 현대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백남준이 열어놓은 새로운 예술의 의미를 확인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201-8571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여성듀오 ‘랄라스윗’ 19~20일 서울서 단독 콘서트



여성 듀오 ‘랄라스윗’(김현아, 박별)이 오는 19~2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단독 콘서트 ‘나의 세계’를 연다.

| 사진
이번 공연은 랄라스윗의 정규 2집 앨범 ‘나의 세계’ 발매 4개월만에 열리는 공연으로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성격이 강하다. ‘세계’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들의 연작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세계의 파트로 구성된 다. 1부는 ‘인트로’, 2부는 음반의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순서대로 연주하는 메인무대, 3부는 ‘아

우트로’로 구성됐다.

특히 2부에서 음악단편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러스트와 뮤직페인팅,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연이 이뤄졌던 그들의 작업 과정에서 느낀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작업도 소개된다.

이번 공연은 ‘2014 뮤즈라이브 대중음악 공연지원 사업’에 따라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중음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인천 태생의 인디레이블 루비레코드가 진행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9th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14

9회째 맞는 국내 유일 최대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 다양한 음악, 낭만, 자유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유토피아! 뜨거운 열기의 송도를 여름 휴가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책임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송도 펜타포트 파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승환 KASABIAN TRAVIS

BOYS LIKE GIRLS / STARSAILOR

IDIOTAPE / CRASH / 피아 / 어반자카파

장미여관 / 로맨틱펀치 / 데이브레이크

디어클라우드 / THE HORRORS

장필순.조동희.오소영 / 페퍼톤스 / 해리빅버튼

국내외 80여팀 출전!

www.pentaportrock.com

인천시민 및 인천소재 대학교 재학생 군인 20% 할인

엔티켓 1588-2341

티켓에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ENGLISH BOOKING ticket.interpark.com/Globel

펜타포트 앱 다운로드

1년에 단 3일!!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단 하나의 페스티벌!!

★ 201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월 1 - 3일 @송도 달빛축제공원(PENTA PARK)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ifez

주관 인천도시공사, yescom, 공동제작 yescom, KBS, YEP

제작투자 인터파크, INT, 하나투어

제작협력 COMPANY# JURY RECORDS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청, 롯데시네마, 미디어 후원 bling SURE, 공식마케팅 바르르, 후원 신한은행, CASS, KEMCORE, GAP, etc.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14-0075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 달 3~4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귀에 속~

〈거의 보이지 않는 귀속형 보청기〉

외관모습도 중요합니다

첫째,

[한 달 3~4만 원!!]

■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한 달 3~4만 원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부 무료]

■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평생 1회 가입비외 더 이상 아무 비용이
들어갈 일 없습니다.

셋째,

[맞춤 귀속형]



■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 줄인 대한보청기 맞춤렌탈”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 2가지

1. 보충현상 (Recruitment) : 일반적으로 보청기 소리가 커지면 듣는 사람에게 소리가 왕왕 울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나 노화성, 신경성 난청에는 더 두드러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된 "가청인식 확장 기능"(E·D·R·A)으로 왕왕 울리지 않고 똑똑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2. 노인성 난청 (Presbycusis) : 노인성 난청은 진행형이므로 방치하시면 점점 더 난청이 심해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 렌탈 신청 상담중!!

본사직영센터

02)2248-5600

인천·부평직영센터

032)516-2200

분당직영센터 031)707-5787 일산직영센터 031)917-1100 의정부직영센터 031)840-2001 구리직영센터 031)551-1310 안산·시흥직영센터 031)415-3800 천안·아산직영센터 041)545-2006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15-3800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자사본점 051)819-0038 ◆(경남)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의정부 중앙공원, 녹지·문화공간 재탄생

의정부시가 지난 30년 동안 시 중심에 위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중앙어린이공원을 시민의 만남·교육·휴식·여가·푸르름이 가득한 ‘책 읽는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해 18일 개장한다.



의정부시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던 중앙어린이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책 읽는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 18일 개장한다.

17~19일 전문대 엑스포

경북대 직업체험관 운영

경북대학교(총장·전지용)는 17~19일 3일간 고양 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014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가해 직업체험관 2개 부스를 운영한다.

경북대 직업체험관은 임상병리과, 뷰티아트과, 준오해디자인과, 약손명가미용과 등 4개 학과가 참가, 뷰티·의료보건 4개 직종(임상병리사·뷰티아티스트·헤어디자이너·스

킨테라피스트)를 체험할 수 있다. 임상병리과는 첨단 검사장비와 혈액형 검사, 채혈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뷰티아트과는 네일아트 작품전시와 시술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또 준오해디자인과는 헤어스타일링 작품전시와 함께 두피상담을 마련했고 약손명가미용과는 피부 상담, 족압 측정, 발균형 분석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 ‘100% 취업보장형 브랜드학과’인 준오해디자인과와 약손명가미용과는 해당 업체 실무진이나 직업상담도 할 예정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용인 경전철 기지·역사면적 ‘들쭉날쭉’

최대 19% 편차 엉터리 고시

“차량기지 면적이 1만5천㎡나 차이나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용인시 경전철의 차량기지 면적이 실제로 1만5천㎡나 작고, 수포역은 등 차량기지와 역사 면적이 최대 19%까지 편차가 나는 엉터리로 고시된 사실이 드러나 말쑥이다.

이같은 사실은 용인시가 최근 고시한 기용구 구장동·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시에 따르면 처인구 삼가동 소재 차량기지 면적은 지난 2012년 시설부분 준공 당시 6만8천174㎡였으나 실제로는 8만3천230㎡로, 1만5천56㎡ 늘어나 편차가 18%나 됐다.

/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중앙공원은 지난 1982년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1987년 조성됐으나, 공원시설물의 노후·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어둡고 폐쇄적인 공원 환경으로 우범화되면서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의 범죄가 상시 발생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등 공원로서의 기능 및 가치가 상실된 곳이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공원부지를 뜻깊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누리고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각종 보고회 등 실제 공원이용자인 시민 및 공원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사업을 추진했다.

새단장한 문화공원은 약 1천653㎡

1987년 조성 노후 우범화

만남·독서테마 리모델링

1천653㎡ 쉼터 내일 개장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시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공원 하부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정원’ 형식의 중앙분수, 초화원도 조성했다.

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원 테마를 위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명언이 담긴 서책부조, 앉음벽, 책 읽는 조형물 등을 설치했고 식막한 콘

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지의 경관 개선, 도심 속 사계절 푸르른 녹지에서 시민이 책을 읽으며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상록수를 집중 식재하는 등 시민이 공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안병용 시장은 “나무와 숲이 있는 공원 조성은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정책이며, 시민들에게 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정부시 최초의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앞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테마가 있는 다양한 주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e@kyeongin.com

미소꽃 해바라기 활짝



양평군 지평면 무왕1리 마을에 해바라기가 만개하면서 이색적인 관광체험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양평군 지평면 무왕1리 마을이 이색적인 관광체험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무왕1리(이장·김기남)는 지난 3월부터 마을주민들이 심은 해바라기가 최근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무왕 1리 마을은 속지명이 ‘저름’으로 ‘구름이 쉬었다 가는 마을’이란 뜻을 담고 있다. 약 196세대 4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김기남 이장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강소농 교육’에 참가한 뒤 마을 지도자들과 매월 1회씩 반성회를 열고 마을발전에 관해 논의하던 중 경기도

양평 무왕1리 체험마을 각광

농가소득·관광자원 두둑이

농업기술원 강소농현장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농가 전여자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무왕1리의 해바라기는 토종 해바라기를 개량한 품종으로 다 자랐을때 키가 1m50밖에 되지 않는 대신 씨가 많고 바람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연구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일반 농작물에 비해 1㎡당 3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다. 김자와 함께 이모작도 가능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남 이장은 “올해 처음 식재한 해바라기가 만개한 모습에 마을 주민 모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약 4천9천586㎡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약 33만578㎡이상 부지에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으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10년안에 마을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정착 가꾸겠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한경대 ‘취·창업·재교육 메카’ 주목

교육부 평생학습중심대 영예

국립한경대학교(총장·태범석)는 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학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경대는 사업비 2억1천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교가 고졸 취업자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성인학습자에게는 취·창업,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정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되며 학위과정은 ‘후진학 거점대학 유형’과 ‘성인계속 교육대학 유형’ 취업자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성인학습자에게는 취·창업,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인 농수산식품 IT융합창업학과, 농어촌 레포츠학과, 토목안전환경공학과(생태조경트랙)가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돼 2015년 3월부터 총 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경석 평생교육원장은 “고졸 취업자들은 일과 병행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체는 전문인력을 통해 산업실적을 높여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특히 우리 대학은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 규모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평택항 물류 전문가들을 육성해 진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대는 앞으로도 성인학습자(특성화 고졸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편, 장학금 및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해 취·창업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 로컬 네트워크 |

LH, 한강신도시 연립·단독주택용 26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 한강신도시내 연립주택용지 6필지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0필지를 공급한다.

16일 LH에 따르면 연립주택용지 6필지는 4월 착공한 김포도시철도역사와 가까운 우량토지로,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당초 85㎡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던 것을 ‘60㎡ 이하’와 ‘60~85㎡ 이하’로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이 땅은 지구내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한강변 생태공원과 가까워 주변에 있는 주거 전용 고급 단독주택지와 함께 조용하고 쾌적한 최고의 주거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중소형 단

독주택에 대한 선호 추세를 반영해 대형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블록당 세대수는 늘렸다. ‘230~330㎡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과 ‘330㎡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등 두 유형이 있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36억~178억원이다. 블록형단독주택이란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단위로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18일 하루에 신청 접수와 추천이 모두 이뤄진다. 계약은 22일 체결할 예정이다.

연립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3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김포/김현기기자 khk@kyeongin.com

사회지구 ‘글로벌 네이밍’ 공모 내달 9일까지

사회지구 글로벌 네이밍 선정위원회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송산그린시티, 공룡알화석지, 국제테마파크, 갈대습지, 오이도 등 사회화 수변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네이밍’을 오는 8월 9일까지 공모한다.

화성시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 K-water 등과 함께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해 환경회복의 상징이 된 사회호를 새롭게 브랜드화해 글로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다.

세계적 친수변 문화관광 콤플렉스로 거듭나는 사회지구에 걸맞은 이름

으로 ▲국제적 감각(Global) ▲해양레저 및 문화관광의 중심지(Water Complex) ▲영어, 한글 모두 가능(단, 외국인의 발음 고려) ▲이해하기 쉬우면서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 등을 담은 글로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외국인도 부르기가 쉬워야 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대상 상금 500만원 등 30편에 총 상금 1천만원이 시상되며, 전용 사이트(www.brandcontest.kr/sihwa)에서 응모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초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지구 글로벌 네이밍 선정위원회’로 문의(02-3445-3440)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yeongin.com

의왕시, 中企 전시참가 지원… 판로개척 성과

의왕시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이 120개가 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12개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업체당 200만원)를 지원해 상반기에만 기업들이 29억원의 생산제품 판매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가비를 지원받은 12개 업체는 최근 킨텍스, 코엑스 등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요트 및 보트 엔진관련 부품, PCB세척기, 자동차 레이저 속도감지기, 차아교정부품 등을 822건 상담해 282건 29억원의 계약에 성공했다.

이중 요트 엔진관련 부품 연구 제조업체인 현대씨즈올(주)는 16억원,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업체인(주)우킨스전자는 3억원, 자동차 레이저 속도 측정기 제조업체인 컴레이저(주)는 2억원, 대기오염측정시스템 제조업체인 KNJ엔지니어링은 1억원 등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을 만나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만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고양시, 네티즌 선정 ‘상반기 베스트 그 곳’

고양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4년 네티즌이 뽑은 상반기 베스트 그 곳’으로 고양시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베스트 그 곳’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를 네티즌들이 직접 뽑아 선정된 9개 지자체를 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경우 최근 여행작가를 통한 콘텐츠 기획을 마치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관

광지가 소개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 신한류 홍보관, 생태공원, 테마동물원, 주주, 아산관광, 맛 기행 등 고양시를 알리는 6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작품이 홍보되고 있다. 시 신한류관광과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하루 평균 60만명이 접속할만큼 신뢰가 높아 고양시 관광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추천축제와 함께 즐기는

와우페스티벌 ▾

“대한민국 모든 축제정보를 한눈에!”



1년 365일 대한민국 전국 축제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와우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시고 축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www.wowfestival.net



날씨

17일 목요일 (음력 6월21일)

장마전선, 오후엔 올라오니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의 분포가 되겠다.

백령도

20/26

파 주

20/30

의정부

20/30

강 화

21/28

서 울

23/30

양 평

22/30

인 천

22/27

평택

22/30

수원

22/30

해돋이 05:25 해질 19:51

인천

미물 08:10 20:34

달출 22:58 달진 10:48

생물 02:04 14:35

바다	풍향	풍속(%)	파고(m)
서해	남~남서	5~9	0.5~1.0
남해	남서~서	5~9	0.5~1.0
동해	남~남서	6~11	0.5~1.0

세모그룹 출신 해경 간부 해운비리 연루 정황 포착

인천지검 수사... 세월호 연관은 아닌 듯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모그룹 근무 경력 논란으로 보직 해임된 해경 고위 간부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모(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정 특채 출신인 이 전 국장은 1991~1997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여객선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특정업체의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행한 혐의로 해경 고위 간부 출신 김모(61)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을 피내사자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맞지만 수사종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세월호나 유병언 관련 수사와 연루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광고문의

수원

031) 231-5530

인천

032) 861-3200

분통 시민들, 택시로 전 정류장 가거나 지하철행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오는 차마다 ‘좌석 없음’

경기, 8시에 금지령 해제

“뒤흔치는 거냐” 격렬 항의

인천선 지하철이용객 급증

“앞으로 어쩌나” 시민 격정

16일 오전 출근길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평소에도 45인승 버스 좌석은 물론 입석승객까지 들어차 공간이 시루를 연상케 했던 출근버스에 입석이 금지되자 정류장마다 시민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7시께 수원 우만4단지 아파트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수십여m씩 줄을 서있으나, 한참이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수원TG 진입을 두 정거장 남겨둔 사실상 마지막 정류장으로, 매번 오는 버스 앞자리창마다

‘잔여좌석 없음. 다음 차를 이용하기 바람’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근길 1분이 아쉬운 시민들은 빨간색 광역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버스는 아슬하게도 정류장을 지나쳤다.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사정이 나은 앞 정류장으로 이동하거나 목적지 인근으로 향하는 다른 버스를 타기도 했다.

시민 박진구(35)씨는 “차라리 서울 사당에 가서 지하철로 갈아탄

뒤 강남에 가는 게 낫다”며 “마냥 기다리다가는 점심이 돼서야 회사에 도착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시각 용인시 동천동 마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강남이든 종로든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잇따라 무정차 통과를 했다. 발만 동동 구르던 시민들은 고속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버스를 타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택한 시민들로 지하철 역마다 북새통을 이루었다.

김보미(31·여)씨는 “입석이 안 된다고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출근했다. 다른 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근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우려됐던 출근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입석금지를 해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정류장에 나와있던 경기도 공무원과 버스업

체 관계자 등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이삼순(56·여)씨는 “대책도 없이 금지를 시켰다가 곧바로 해제해 이용객들을 골탕먹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진입 전 정류장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배차 계획을 조정, 중간정류장에서도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김범수·윤설아기자 faith@kyeongin.com

아파트 단지 조형물 흉물 신세

의무 설치 불구 관리 방치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설치된 예술품 상당수가 관리 부실 등으로 파손된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단지내 예술품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 584세대 규모의 아파트 정문 뒤에는 무릎을 꿇은 남성이 장대를 지고 서있는 듯한 조각석상

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조금만 다가서면 청소를 하지 않은듯 새까만 흙먼지 때가 석상 대부분을 덮고 있고, 돌과 돌이 접합된 부분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돌이 떨어져 나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다. 지난 2002년 착공된 이 아파트는 그동안 단 한번도 석상의 청소를 하지 않았고, 보수를 위한 예산책정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영통동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지 중앙에 15m 높이의 거대한 새 모양 조형물이

있으나 바닥면과 조형물의 접합부분 전체가 표면이 벗겨지고 파손돼 금방이라도 무너질듯 위태로워 보인다. 특히 새 깃털의 끝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부식된채 색깔이 파랗게 바래있다. 지난 1999년 완공된 이 아파트 역시 입주후 한차례도 조형물 관리를 하지 않았다.

주민 김모(47·여)씨는 “아파트 분양가에 예술품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다던데 헛돈을 쓴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지어진 연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건축비의 0.1~0.7%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동상이나 그림 등 예술품을 단지내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예술품 의무 설치 등 관련 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아 개선과 폐지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경기대 사회적 배려 전형

단원과 2학년 전원에 자격

경기대학교는 오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를 겪은 단원과 2학년 학생 전원에 대해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배려자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이며 경기대에 올해 50여명이 이 전형으로 입학했다. 2016학년도에는 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학교 측은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은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됐다. 대교협은 경기대를 포함한 각 대학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입시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

인천시도 구리디자인시티 사업 반대

“풍납취수장 수질에 악영향”

상수도사업본부, 정부 요청

구리시가 인천 시민이 마시는 수도 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인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1일자 22면 보도) 인천시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인천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풍납취수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92%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규모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우수(빗물 등) 유통량의 증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천수구역 조성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 일대 172만1천㎡에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는 인천시에 하루 평균 44만 t의 수도 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

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사업 진행시 상수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지역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구리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수도권 1천만 시민의 마실 물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구리시는 사업성과 환경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교통 방한·AG 대비... 개인총기류 영치

16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 무기고에서 경찰이 프란치스코 교통 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임시 영치된 개인 소지 총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안내문 발송 등으로 개인이 보관중인 총기류를 자진 제출받아 임시로 영치하고 응하지 않으면 내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녹천농원펜션

글램핑의 지상낙원

녹천농원펜션/캠핑

시원한 자연체험과 캠핑으로 환상적인 여름휴가 추억과 낭만을 만드는 잊지못할 캠핑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수원 031) 231-5530

인천 032) 861-3200

Information

함께 떠나요!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녹천농원으로!

7월 19일
OPEN

■글램핑 패키지

■넓은 자리의 오토캠핑장

■캠핑장 편의시설

■족구장

■넓은 수영장

■잔디구장

■체험농장

■펜션·야외테이블

펜션&캠핑 문의전화

010-8933-1958

가든&식당 문의전화

011-777-7085

맑고 깨끗한 계곡과 깊은 산에 둘러싸인 달콤한 휴식처
글램핑(glamping)이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하연 산상리 296-1(운악창계로 333번길 55-19)

깡이부리마을에 기부채납 김치공장 ‘그림의 떡’

< 만석동 쪽방촌 >



인천시 동구 만석동 깡이부리마을에 지어진 김치공장이 복잡한 행정규제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한채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기업이 쪽방촌 자립 지원
이달초 완공해 동구에 귀속
사회적기업 인증 복잡하고
운영비 1억원 큰 부담 ‘발목’
가동못한채 주민만 ‘발동동’

인천의 한 대기업이 동구 만석동 쪽방촌(일명 깡이부리 마을) 주민 지원을 위해 기부채납한 김치공장이 준공된 지 보름이 넘도록 텅텅 빈 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치공장 건물은 이달초 완공됐지만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데다 공장

가동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규제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은 빈 공간에서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상 2층(연면적 330㎡)규모의 김치공장을 지어 동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공장 운영은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공장은 지난 2일 준공됐지만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됐다.

회사가 기부채납한 건물은 동구 행정재산이 됐고 주민들이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주)해맑은 김치가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없는 사기업으로 돼 있다.

일반 사기업이 지자체 소유의 재산

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상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첫번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김치공장 건물 재산가액(10억원)의 5%인 5천만원을 주민들이 사용료로 지불해야 공장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상반기예나 (주)해맑은 김치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쪽방촌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5

천만원으로 김치공장 운영을 위한 회사를 설립했지만 복잡한 행정규제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김치공장을 가동하려면 각종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과 운영자금 등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쪽방촌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라는 점이다.

김치공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하루라도 빨리 김치공장이 가동돼 수익이 나고 우선 채용한 사무직 직원의 월급도 주는데 현재 빈 공장에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공장 가동이 힘든 처지”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부평문화재단 대표 수상한 상근직 전환

무보수 → 연봉 6천만원
구, 변경 조례 개정안 추진
‘구청장 사람 챙기기’ 논란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무보수 비상근직에서 연봉 6천만원 상당을 받는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전 대표이사(상임이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했던 것을 책임경영을 위해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지만, ‘구청장 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

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달 26일 의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상근직이 된다. 부평구는 ‘효율적 조직관리’, ‘책임 경영’을 도모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는 2011년 4월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고쳐 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 역할을 하던 상임이사 자리를 없앴다. 조례 개정은 당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주도했는데, 당시 상임이사는 한나라당 소속

이었던 박윤배 전임 구청장이 임명했던 A씨였다. 조례 개정에는 부평구는 임기가 15개월가량 남아 있던 상임이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부평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부평구는 작년 5월 A씨에게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약 8천800만원을 배상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이번에 부평구가 갑작스레 조례를 바꿔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수천만원의 연봉을 주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구의원은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표이사 연봉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재단 직원이 35명에서 81명으로 늘어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했다”며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부평구의회는 17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윤슬이기자 say@kyeongin.com



1백여 장애인 ‘정보화 대체전’ 열기

16일 인천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4 인천시 장애인정보화 대체전’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정보활용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와 인천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정보검색과 정보활용 2개 종목에서 인천의 20세 이상 장애인 120여명이 출전했다. 개막식에는 한태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임윤영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장, 김장근 인천시보건복지국장 등 2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임순석기자 sseek@kyeongin.com

‘살충제 교사’ 시민감사관 투입

감사팀에 심리상담사 포함
시교육청 “엄중 조치” 지시

체벌 과정에서 학생의 얼굴에 살충제를 뿌린 인천 1고교 사건(경인일보 7월 16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이청

연 교육감이 16일 시민감사관이 포함된 감사팀을 투입,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감사팀에는 피해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사도 포함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시간

끌기식으로 대처하면서 송방방이 처벌에 그쳤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인 15일 학교폭력 담당부서에서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시민감사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이날 오후 1교교를 방문해 체벌을 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학생은 체험학습을 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팀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만나 동의를 구한 뒤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제자의 얼굴

에 살충제를 뿌린 행위는 가볍게 처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담당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1고교 2학년 담임교사인 A(52)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에 친구들과 야간자율학습 중 교실에서 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담임

교사가 오는지 망을 보던 B(17)군을 적발해 꾸지람을 하는 과정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 교실에 비치돼 있던 에프킬라를 B군의 얼굴에 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광고의 인천 032)861-3204 수원 031) 231-5271

kyeongin.com

KD운송그룹배 제11회 경인일보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2014. 8. 20~22 / 용인 골드CC
(챔피언코스)



기록도 세우고, 장학금도 받자!
최강 골퍼 유망주들의 그린 혈투!



수많은 프로골퍼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학생골프대회!** 올해의 우승자는 누구?

대회일시 1차 예선 : 2014년 8월 20일 (수) 06:00 ~
2차 예선 : 2014년 8월 21일 (목) 06:00 ~
본 선 : 2014년 8월 22일 (금) 06:00 ~

참가인원 전국 중·고등학생 선착순 500명
경기방식 36 Holes Stroke Play

접수기간 2014년 7월 14일(월) ~ 7월 31일(수)까지
신청방법 경기도골프협회 (kgdagolf.or.kr) 홈페이지 참조

티그라운드 남자 고등부 : 청색 ● 여자 중등부 : 적색 ● 남자 중등부, 여자 고등부 : 백색 ○

문의전화 경기도골프협회 031-253-6277